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권기수 · 박미숙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권기수 · 박미숙

국문요약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세는 물론 경쟁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해본 결과,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편승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2004~13년) 중남미의 연평균 수입증가율(10.7%)은 전 세계 수입증가율(7.9%)은 물론 이전 10년간(1994~2003년)의 수입신장세(5.9%)를 크게 앞섰다. 2000년대 중남미의 높은 수입증가세는 중남미 각국이 역외국과 추진한 적극적인 FTA 정책에도 힘입은 바 컸다. 높은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중남미의 개방도(중남미 GDP에서 수출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감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의 보호무역조치로 개방도

는 후퇴하는 양상이다. 2000년대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선진국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데 반해 개도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70%에서 2011년에는 50.6%로 19.4%포인트나 감소했다.

한국의 무역통계를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먼저 대중남미 수출은 연도별로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국별로 최근 3년간 수출감소는 주요 선박 수출국인 케이맨군도,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이외에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대한 수출하락에 기인했다. 품목별로는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수출하락을 부추겼다. 둘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품목별 및 국별 편중도가 매우 높았다. 2013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편중도(대중남미 총수출 대비)는 72.4%에 달했으며, 10대 수출국에 대한 집중도는 90%를 넘었다. 특히 대중남미 양대 수출대상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4%에 달했다. 셋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자본재나 원자재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넷째, 품목별로 선박이 대중남미 수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선박 수출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카리브 및 파나마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한국 총무역흑자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우리 기업

들은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현지 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등 가격 외적인 요소로 승부를 걸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비관세장벽 중에서 복잡한 사전 수입허가, 추가적인 세금부과, 세관의 자의적 관세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다양한 무역지수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먼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둘째, 비교우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상품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수송기지에서 비교우위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셋째, 경쟁국과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경쟁국 중에서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중국, 미국이 잇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2011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다. 넷째,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남미 시장의 수요증가에 의지한 측면이 컸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증가는 중남미 수입수요 증가에 기댄 측면이 컸다.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중남미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실효환율 변화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경쟁국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근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에 따른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부진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다. 중남미 지역의 수입은 지난 10년간(2004~13년) 연평균 10.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 수입신장세는 경제성장둔화를 반영해 연평균 4%로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수입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4.9%나 하락했다. 둘째, 중남미 현지 시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수출경합도 및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 등에서 확인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 중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셋째,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경쟁국과 비교해 특히 부진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수출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수출은 일부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쏠림현상 심화, 빈약한 수출품목 수 등으로 중남미 경제의 부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수출상품의 비중(2013년)이 59%인 데 반해 중남미 수출에서 그 비중은 72%에 달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편중도 심화로 중남미 각국의 빈번한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시장인 중남미에서 수출시장의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다. 우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미개척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단을 적극 파견할 필요가 있다. 무역집중도 분석결과, 수출 개척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다. 수출품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부상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교육, 보건 및 교통 분야에서 수출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중남미 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빈곤층(BOP) 시장에 대한 공략도 과제다. 중남미 빈곤층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유통 다국적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 유통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진출이 저조한 중소 수출업체의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소지역 경제통합체별로 '통합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겨냥해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마련이다. 2014년 말 현재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민국 수입규제는 총 21건(전 세계의 대한민국 수입규제의 13%)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잠재적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역조가 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구매사절단 파견,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광물 및 식량 자원 개발 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무역역조가 심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자금 증대, 기술협력 확대, 무역역조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칫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중남미산 제품의 대한(對韓) 수입으로 이어져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들과의 후속 FTA 확대이다. 한·칠레 및 한·페루 FTA 사례에서 입증되듯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수출확대를 위한 확실한 지름길이다. 따라서 침체에 빠진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후속 FT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남미 FTA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FTA의 개선(upgrade)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개방했으나 한국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규모 국가들과의 FTA 전략이다. 현재 한국과 FTA 공동연구를 마쳤거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중미 국가 및 에콰도르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미 국가와의 FTA 협상은 FTA 효과나 협상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1(한국)+5(중미 5개국) 협상방식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거대경제권인 멕시코 및 브라질과의 FTA 전략이다. 특히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 전략은 한·ME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공동연구 업그레이드를 통한 FTA 협상 분위기 조성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관세장벽 개선이다. 우리 기업들이 대중남미 수출 시 겪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 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이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해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 중에

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한국형 ‘Single Window’ 제도인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수출확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대중남미 전수는 한국의 앞선 전자통관 시스템의 수출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통관시스템 개선을 가져오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에콰도르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 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만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3. 보고서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가. 보고서 구성	19
나. 국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 제2장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23
1.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24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및 구조	28
가. 연도별 대중남미 수출	28
나. 품목별 대중남미 수출	30
다. 국별 대중남미 수출	34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 브라질 사례	39
■ 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분석	45
1. 시장점유율 분석	44
2. 시장별 비교우위 분석	48
3. 수출경합도 분석	51
4.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54

Ⅱ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	61
1. 모형과 데이터	62
2. VAR 모형 분석결과	68
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변화의 영향	69
나.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의 영향	72
다. 경쟁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 변화의 영향	74
라. 예측오차 분산분해	77
3. VAR 모형 분석결과 종합	80
Ⅱ 제5장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	85
1. 분석결과 종합	84
2.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88
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다변화	88
나.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강구	92
다. 중남미 국가들과 후속 FTA 확대	94
라. 비관세장벽 개선	98
Ⅱ 참고문헌	102
Ⅱ Executive Summary	104

표 차례

표 2-1.	중남미 국가들의 역외국가와의 FTA 추진 현황	26
표 2-2.	중남미 각국의 경제개방도 추이	27
표 2-3.	중남미 지역별 수입 비중 추이 비교	28
표 2-4.	한국의 전 세계 무역흑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30
표 2-5.	한국의 대중남미 10대 수출품목 추이	32
표 2-6.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10대 수출 증가 및 감소 품목	33
표 2-7.	한국의 대중남미 10대 수출대상국 추이	34
표 2-8.	한국의 대중남미 10대 수출 증가 및 감소 품목	36
표 2-9.	브라질 진출 한국 현지 법인의 수입 현황	38
표 2-10.	대브라질 수출 시 경험하는 비관세장벽	42
표 3-1.	중남미 주요국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전체 품목	45
표 3-2.	중남미 주요국에서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전체 품목	47
표 3-3.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10대 수출품의 비교우위: 경쟁국간 비교	50
표 3-4.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불변시장점유율	55
표 3-5.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의 불변시장점유율	58
표 4-1.	한국의 중남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SITC 2단위)	65
표 4-2.	수출부진요인 분석을 위한 단위근검정	67
표 4-3.	실질실효환율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누적 반응	70
표 4-4.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반응	72
표 4-5.	경쟁국의 수출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반응	75
표 4-6.	한국의 중남미 수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경쟁국이 일본인 경우	78
표 4-7.	한국의 중남미 수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경쟁국이 중국인 경우	79
표 4-8.	한국의 중남미 수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경쟁국이 미국인 경우	80
표 5-1.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무역집중도	89
표 5-2.	중남미 국별 대한민국 수입규제 현황(2014년 말 현재)	92
표 5-3.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 무역흑자 대상국(2013년)	93

그림 차례

그림 2-1. 중남미 경제성장률과 수입증가율 추이	24
그림 2-2.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중남미 지역의 위상 추이	25
그림 2-3. 한국의 대중남미 및 전 세계 수출 추이	25
그림 2-4. 한국의 대중남미 및 전 세계 수출증가율 추이	29
그림 2-5.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비중 추이	29
그림 2-6.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29
그림 2-7.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	36
그림 2-8.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	37
그림 2-9.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	37
그림 2-10. 브라질의 국별 중간재 수입 비중 비교	38
그림 2-11. 멕시코의 국별 중간재 수입 비중 비교	38
그림 2-12. 한국기업의 대브라질 수출동기	39
그림 2-13. 대브라질 수출실적 평가	39
그림 2-14.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주요 경쟁상대국	40
그림 2-15.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 평가	40
그림 2-16. 브라질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한국기업의 경쟁우위 정도	41
그림 2-17. 대브라질 수출 애로사항	41
그림 2-18. 브라질 시장에서 FTA로 인한 피해와 우려	42
그림 2-19. MERCOSUR·EU 간 FTA가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	42
그림 3-1. 중남미 주요국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전체 품목	45
그림 3-2.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전체 품목	46
그림 3-3.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10대 수출품의 비교우위(2013년)	49
그림 3-4.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국의 비교우위 추이	51
그림 3-5.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의 수출경합도(SITC 3단위)	52

그림 3-6.	중남미 각 국가에서 한국과 경쟁국의 수출경합도(SITC 3단위) …	53
그림 3-7.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불변시장점유율 …	56
그림 3-8.	중남미 각국 시장에서 한국의 불변시장점유율 …	57
그림 4-1.	한국의 중남미 상위 10대 수출품목 수출 추이(SITC 2단위) …	66
그림 4-2.	실질실효환율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누적 반응 …	71
그림 4-3.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반응 …	73
그림 4-4.	경쟁국의 수출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반응 …	76

글상자 차례

글상자 5-1.	한국의 대중남미 UNI-PASS 협력 현황 …	99
----------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보고서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 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4.9% 하락했다. 이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감소율(-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2014년 들어서도 6월까지 대중남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출감소세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1년 400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363억 달러에 그쳤다.

문제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주요 경쟁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11~13년) 중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8.5%로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EU(6.9%), 미국(4.9%)도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저조하긴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도 수출증가세(0.5%)를 나타냈다. 이 시기 주요 경쟁국들의 이 같은 수출증가세는 중남미 시장의 지속적인 수입성장세(4%)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세는 물론 경쟁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역동적인 성장센터이자 한국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인 중남미 시장에서의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2000년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중남미 경제가 1차 상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세로 돌아선 2004년부터 가장 최근연도인 2013년까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부진을 보인 최근 3년간(2011~13년)을 주요 분석기간으로 한다. 공간적으로는 중남미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중점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중남미 수출 부진요인 분석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했다. 먼저 정성적인 방법으로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 역외국가와의 FTA 추진 현황, 중남미 지역의 개방도 등은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등 현지 1차 문헌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둘째,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시장비교우위(MCA), 수출경합도를 분석했다. 또한 대중남미 수출증감요인을 보다 세분화해 분석하기 위해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모델을 활용했다. CMS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각 품목별 시장점유율이 유지된다면 수출경쟁력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여기서는 CMS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증감요인을 ① 중남미 총수입수요 변화에 따른 수출증감효과, ② 대중남미 수출 상품 구성의 유리성에 따른 특정 상품의 수요변화에 힘입은 수출증감효과, ③ 경쟁력 변화에 의한 수출증감효과로 구분해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중남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규명을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셋째, 대중남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는 본 연구진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중 브라질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이다. 당시 255개 대브라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43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했다. 본 연구에서 지난 설문조사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조사결과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설문조사 시점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본격적으로 부진을 보이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둘째 설문조사 대상국인 브라질이 최근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질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수출이 부진을 보인 이유를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보고서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2000년대 중남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과 수출구조를 분석했다. 여기서는 특히 2000년대 대중남미 수출구조 변화를 연도별, 품목별, 국별로 분석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의 주요 특징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브라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부진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비교우위, 수출경합도, 불변시장변화율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통해 대중남미 수출부진이 중남미 수입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 경쟁력 하락에 따른 것인지를 규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 Regression)을 사용해 최근 한국 주요 수출품의 대중남미 수출감소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나. 국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한국의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남미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까

지 수행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권기수(2001)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연구에서 1990년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진오 외(2011)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 4개국에 대한 수출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국제무역연구원(2012)은 『중남미 인프라시장 동향과 유망 수출품목』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발전잠재력을 분석하고 인프라 개발 수요와 관련된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해 제시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2013)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방안 연구』에서 수출매력도지수 분석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국가 및 품목을 선정해 제시하였다.

2014년 들어 국제무역연구원은 한·페루 FTA 발효 3주년을 맞아 『FTA 격전지 페루, 한국의 판세는?』이라는 주제의 연구에서 양국간 FTA 3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페루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해 제시했다.¹⁾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분석시점이 오래되어 현재의 수출부진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일부 국가나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중남미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연구원과 수출입은행의 연구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분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유망 수출품목 도출이나 유망 수출시장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대중남미 수출구조의 변화나 수출부진요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1) 박지은, 장지영(2014), 『FTA 격전지 페루, 한국의 판세는?』, 국제무역연구원.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중남미 수출부진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를 토대로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 비교우위, 수출경합도, 불변시장점유율 및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제2장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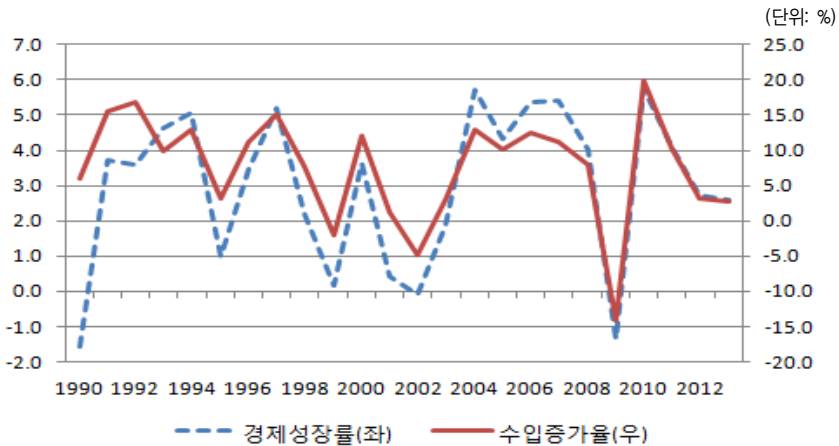
1.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및 구조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 브라질 사례



1.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는 중국경제의 특수 등 대외적 여건 개선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시기(2009년 제외)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는 연평균 5%로 1970년대 이후 가장 긴 호황이었다. 이 같은 안정적 경제성장에 힘입어 수입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2004~13년) 중남미 지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0.7%로 전 세계 연평균 수입증가율 7.9%를 크게 앞섰다. 이는 이전 10년간(1994~2003년) 중남미 지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5.9%)을 2배나 웃도는 것이다.

그림 2-1. 중남미 경제성장률과 수입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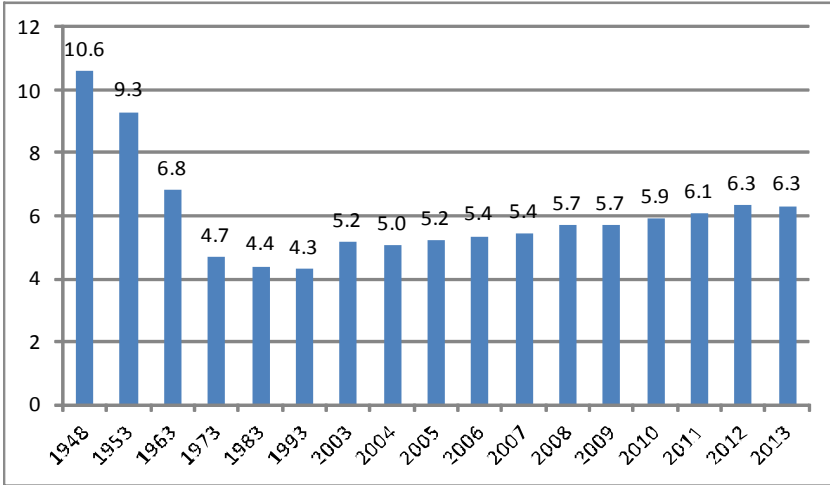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https://globalsso.ihs.com>(accessed November 14, 2014).

높은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중남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높아졌다. 1980년대 4%대에 불과했던 중남미 지역의 수입 비중은 2003년 5%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13년에는 6%대에 도달했다.

그림 2-2.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중남미 지역의 위상 추이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 <https://globalsso.ihs.com>(accessed November 14, 2014).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역외국가와의 FTA 정책도 중남미의 수입증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역외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에 힘입어 그간 폐쇄적이었던 중남미 수입시장이 크게 개방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역외국가와의 FTA에 가장 적극적이며, 그 뒤를 멕시코,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이 따르고 있다.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의 시장개방도도 높아졌다. 여기서 개방도는 중남미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컫는다. 2012년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개방도가 높은 상위 국가는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이다. 그에 반해 개방도가 낮은 폐쇄적인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다.

표 2-1. 중남미 국가들의 역외국가와의 FTA 추진 현황

	미국	캐나다	EU	중국	일본	한국	인도	기타
콜롬비아	○	○	●	공동 연구	공동 연구	●		
코스타리카	○	○	●	○		공동 연구		싱가포르
칠레	○	○	○	○	○	○	○	호주, P4,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	○	○		○			
파나마	●	●	●					대만, 싱가포르
페루	○	○	●	○	○	○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		○					
CARICOM	○	협상 중	○					
중미	○		●					대만
MERCOSUR		공동 연구	협상중			공동 연구	○	

주: ○ FTA 발효, ● FTA 체결.

자료: CEPAL(2011), *Anuario Estadíst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p. 89; CEPAL(2013), *Anuario Estadíst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p. 103.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개방도는 오히려 후퇴했다. 2003~12년 기간 개방도가 후퇴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개방도가 크게 진전된 국가는 파나마,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이 대표적이다.

표 2-2. 중남미 각국의 경제개방도 추이

(단위: %, GDP 대비 교역액)

국가	2003(A)	2012(B)	차이(A-B)
아르헨티나	40,6	37,1	3,5
볼리비아	52,0	85,1	-33,1
브라질	27,1	26,6	0,5
칠레	68,9	68,1	0,8
콜롬비아	36,5	37,9	-1,4
코스타리카	95,2	79,5	15,7
에콰도르	53,8	61,6	-7,8
엘살바도르	70,0	74,9	-4,9
과테말라	66,0	60,8	5,2
온두라스	122,2	120,6	1,6
멕시코	52,2	66,6	-14,4
니카라과	76,0	105,8	-29,8
파나마	122,1	166	-43,9
파라과이	96,0	99,9	-3,9
페루	35,3	49,5	-14,2
도미니카공화국	86,5	59,1	27,4
우루과이	50,1	55,9	-5,8
베네수엘라	50,6	50,4	0,2
중남미	45,6	44,8	0,8

자료: CEPAL(2011),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 89; CEPAL(2013),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 103.

2000년대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선진국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데 반해 개도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0%에서 2011년에는 50.6%로 19.4%포인트나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남미 수입시장에서 선진국의 비중은 54%에서 39.5%로 크게 줄었다. 중남미 소지역별로 개도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남미로 60.5%에 달했다.

표 2-3. 중남미 지역별 수입 비중 추이 비교

(단위: %)

	2000년				2011년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중남미	기타 개도국	개도국 전체		중남미	기타 개도국	개도국 전체
중남미	70.0	16.5	13.5	30.0	50.6	20.8	28.6	49.4
중남미 (멕시코 제외)	54.6	29.8	15.6	45.4	41.3	29.3	29.4	58.7
남미	54.0	29.2	16.8	46.0	39.5	27.4	33.0	60.5
중미공동시장	52.7	34.5	12.8	47.3	50.6	34.1	15.3	49.4
멕시코	86.2	2.6	11.3	13.8	68.9	4.1	26.9	31.1
카리브공동체	67.0	25.5	7.5	33.0	55.0	32.6	12.5	45.0

자료: CEPAL(2011),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 89; CEPAL(2013),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 103.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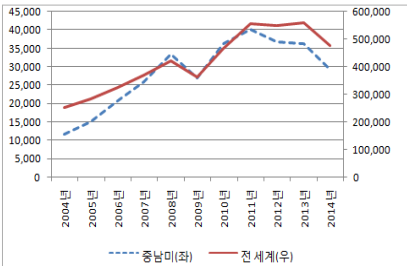
가. 연도별 대중남미 수출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중남미 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시장으로 부상했다. 지난 10년간(2004~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전 세계 수출신장세(9.2%)를 크게 상회하는 13.6%에 달했다. 이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반영해 대중남미 수출규모는 2004년 116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40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의 수출증가세를 살펴보면 그 양상이 사뭇 다를 수 있다. 이 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한국의 전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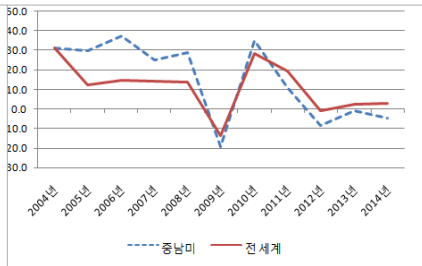
연평균 수출증가율(0.4%)을 크게 하회하는 -4.9%에 머물렀다. 그 결과 대중남미 수출규모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363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림 2-3. 한국의 대중남미 및 전 세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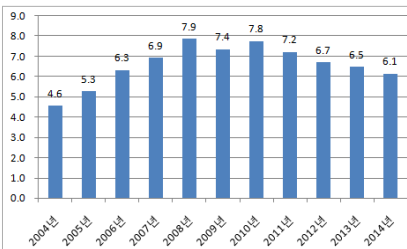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의 대중남미 및 전 세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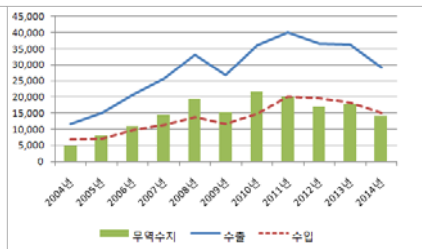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대중남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수출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9%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대중남미 수출 위상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3년에는 2006년 수준인 6.5%까지 하락했다.

그림 2-5.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2-6.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여전히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이다. 한국의 대중남미 무역흑자기조는 1987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수입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출증가세로 무역흑자규모는 2010년 21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2011~13년)간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550억 달러로 한국 총무역흑자의 53.3%에 달한다.

표 2-4. 한국의 전 세계 무역흑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전 세계(A)	중남미(B)	비중(B/A)
2004	29,382	4,912	16.7
2005	23,180	7,970	34.4
2006	16,082	10,859	67.5
2007	14,643	14,457	98.7
2008	-13,267	19,511	-
2009	40,449	15,116	37.4
2010	41,172	21,542	52.3
2011	30,801	19,966	64.8
2012	28,285	17,024	60.2
2013	44,047	17,964	40.8
2014년 (1~10월)	36,261	14,242	39.3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품목별 대중남미 수출

품목별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10대 수출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최근 들어 수출 쏠림현상이 일부 줄어들고 있으나 2013년 기준으로 10대 수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다.

둘째, 다른 지역에 비해 선박의 수출 비중이 높다. 2011년 이후 그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대중남미 총수출 대비)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중남미 전체 수출의 1/5을 선박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의 수출 변화 여부에 따라 중남미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셋째, 2000년대 들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에 머물렀던 자동차 수출의 비중은 2011년에 17%까지 증가했다. 자동차부품의 수출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자동차부품은 2011년 대중남미 4대 수출품으로 부상한 데 이어 2013년에는 3대 수출품으로까지 위상이 높아졌다. 그 결과 2013년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비중은 22.8%에 달한다.

2000년대 들어 대중남미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브라질 수출호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4년부터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힘입어 브라질 국내 생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수입차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헤알화의 강세에 따른 수입자동차 가격 하락, 2008년 말부터 소비진작책의 일환으로 브라질 정부가 추진한 자동차 공업제품세(IPI) 인하조치 등이 자동차의 수입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브라질 자동차 판매시장 환경개선에 힘입어 2005년 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규모는 2011년 약 23억 달러로 70배 이상 증가했다.

표 2-5. 한국의 대중남미 10대 수출품목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4년			2011년			2013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2,846	2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10,785	26.9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6,788	18.7
2	무선통신기기	1,303	11.3	자동차	6,896	17.2	자동차	5,313	14.6
3	자동차	1,162	10.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137	7.8	자동차 부품	2,968	8.2
4	영상기기	771	6.7	자동차부품	2,353	5.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964	8.2
5	컴퓨터	509	4.4	무선통신기기	1,710	4.3	영상기기	1,787	4.9
6	편직물	506	4.4	철강판	1,652	4.1	무선통신기기	1,747	4.8
7	합성수지	503	4.4	영상기기	1,570	3.9	철강판	1,474	4.1
8	전자관	442	3.8	석유제품	1,514	3.8	합성수지	1,423	3.9
9	석유제품	249	2.2	합성수지	1,334	3.3	반도체	1,156	3.2
10	가정용 회전기기	207	1.8	건설광산기계	591	1.5	석유제품	696	1.9
소계		8,498	73.5		31,542	78.6		26,317	72.4
총계		11,563	100.0		40131	100.0		36,32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넷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소비재보다 자본재 및 원자재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서 확연하게 목격된다. 1993년 이전까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소비재 위주(전체 수출의 50% 상회)였으나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자본재 및 원자재 중심으로 재편된다. 북미시장을 겨냥해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본재 및 원자재의 비중은 199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73%까지 증가했다.

다섯째, 최근 3년간(2011~13년)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증가를 비교해

본 결과, 대중남미 수출부진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0.7%), 자동차(-12.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8%), 철강판(-5.5%), 석유제품(-32.2%)의 수출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6.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10대 수출 증가 및 감소 품목

(단위: %)

순위	상위 10대 품목(2013년)의 수출증가율		상위 10대 수출감소품목		상위 10대 수출증가품목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0.7	석유제품	-32.1	철로 및 철구조물	126.6
2	자동차	-12.2	컴퓨터	-32.0	반도체	68.9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0.6	전자응용기기	27.7
4	자동차부품	12.3	편직물	-14.5	정전기기	25.1
5	철강판	-5.5	자동차	-12.2	기구부품	22.7
6	영상기기	6.7	가정용 회전기기	-11.6	철강관 및 철강선	20.7
7	무선통신기기	1.1	철강판	-5.5	기타 기계류	16.
8	합성수지	3.3	건설광산기계	-5.3	전선	12.4
9	석유제품	-32.2	섬유및화학기계	-4.3	자동차부품	12.3
10	반도체	68.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7	원동기 및 펌프	11.8

주: 수출품목은 2011~13년 기간 수출 합계를 통해 산출한 상위 30대 품목 중 수출감소율이 큰 10대 품목, 수출증가율이 큰 10대 품목을 선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인 10대 품목은 철로 및 철구조물,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정전기기, 기구부품, 철강관 및 철강선, 기타 기계류, 전선,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등으로 밝혀졌다.

다. 국별 대중남미 수출

국별 대중남미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10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편중이 매우 심하다.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4년 85.7%에서 2013년에는 90.1%로 증가했다. 특히 양대 수출대상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매우 높은 게 특징이다. 두 국가에 대한 수출편중도는 2004년 41.3%에서 2013년에는 53.5%로 절반을 상회한다.

둘째, FTA 체결국인 칠레와 페루의 수출 위상이 증가했다. FTA 출범 당시 대중남미 5대 수출대상국이었던 칠레는 2013년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에 이은 4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수출 비중도 6.1%에서

표 2-7. 한국의 대중남미 10대 수출대상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4년			2011년			2013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멕시코	2,994	25.9	브라질	11,821	29.5	멕시코	9,727	26.8
2	브라질	1,785	15.4	멕시코	9,729	24.2	브라질	9,688	26.7
3	파나마	1,264	10.9	파나마	3,798	9.5	파나마	3,485	9.6
4	바하마	998	8.6	칠레	2,381	5.9	칠레	2,458	6.8
5	칠레	708	6.1	바하마	1,904	4.7	버뮤다	1,601	4.4
6	버뮤다	646	5.6	콜롬비아	1,614	4.0	페루	1,440	4.0
7	과테말라	550	4.8	버뮤다	1,599	4.0	콜롬비아	1,342	3.7
8	콜롬비아	459	4.0	페루	1,368	3.4	아르헨티나	1,075	3.0
9	에콰도르	263	2.3	아르헨티나	1,081	2.7	바하마	1,013	2.8
10	페루	245	2.1	에콰도르	887	2.2	에콰도르	920	2.5
소계		9,912	85.7		36,182	90.2		32,749	90.1
총계		11,563	100		40,131	100.0		36,32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6.8%로 증가했다. 중남미 국가 중 두 번째 FTA 체결국인 페루의 수출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대중남미 수출에서 페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1%에서 FTA 발효연도인 2011년에는 3.4%로 증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4%에 도달했다.

셋째, 조세천국인 버뮤다, 바하마 등 카리브 국가의 수출 비중이 높다. 2000년대 들어 줄곧 버뮤다와 바하마는 대중남미 10대 수출대상국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양국이 중남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한다. 파나마와 더불어 카리브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선박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중남미 수출을 분석할 때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3년간 대중남미 수출이 감소한 상위 10대 국가를 조사한 결과, 주요 선박 수출대상국인 영국령 케이맨군도,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한 수출감소세가 현저했다. 그밖에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다섯째, 최근 3년간 대중남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상위 10대 국가를 살펴본 결과, 페루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규모 국가로 밝혀졌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볼리비아,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생산기지인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수출과 현지 투자의 연관성은 매우 크다.

표 2-8. 한국의 대중남미 10대 수출 증가 및 감소 품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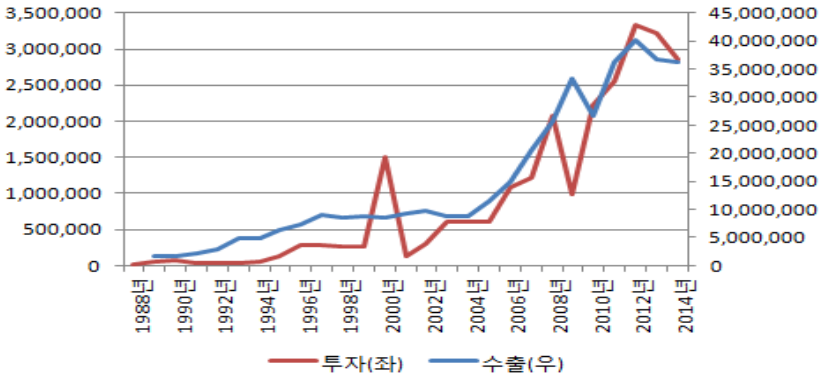
순위	상위 10대 국가의 수출 증가율		상위 10대 수출감소국가		상위 10대 수출증가국가	
	국가	증가율	국가	증가율	국가	증가율
1	브라질	-9.5	영령 케이맨군도	-58.1	볼리비아	38.5
2	멕시코	0.0	바하마	-27.1	우루과이	33.3
3	파나마	-4.2	영령 버진아일랜드	-16.7	엘살바도르	24.9
4	칠레	1.6	베네수엘라	-15.1	자메이카	12.2
5	버뮤다	0.1	코스타리카	-14.8	도미니카 공화국	9.9
6	콜롬비아	-8.8	쿠바	-11.6	과테말라	7.2
7	페루	2.6	브라질	-9.5	바베이도스	7.2
8	바하마	-27.1	콜롬비아	-8.8	트리니다드 토바고	4.4
9	아르헨티나	-0.3	벨리즈	-6.9	페루	2.6
10	에콰도르	1.9	아이티	-6.4	수리남	2.1

주: 수출품목은 2011~13년 기간 수출 합계를 통해 산출한 상위 30대 품목 중 수출감소율이 큰 10대 국가, 수출증가율이 큰 10대 국가를 선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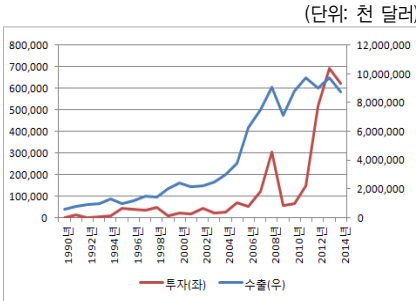
그림 2-7.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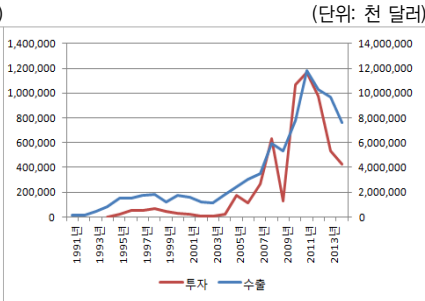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2-8.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2-9.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과 투자 추이 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LG전자나 삼성전자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의 부품을 한국에서 주로 수입한다. 이는 브라질의 수출품목 구성이 소비재보다 자본재에 편중된 데서도 목격된다. 1990년대 이전까지 대브라질 수출은 소비재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힘입어 자본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모했다. 그 결과, 2013년에 자본재 수출 비중은 대브라질 총수출의 66%에 달한다. 2013년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 통계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동국제강, 현대중공업 등)이 2013년 한해 수입한 규모는 68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는 2013년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의 6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무역패턴으로 브라질과 멕시코의 중간재 수입 비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의 국별 중간재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11%)이다. 이는 현지

표 2-9. 브라질 진출 한국 현지 법인의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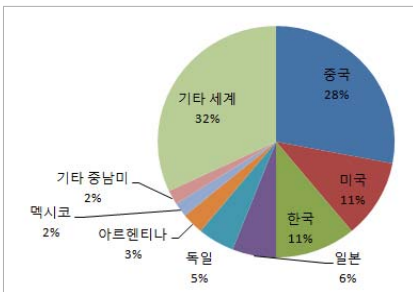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브라질 현지 법인명	2013년	2012년	증가율
SAMSUNG ELETRONICA DA AMAZONIA LTDA	3,849	3,498	10.03
LG ELECTRONICS DO BRASIL LTDA	2,287	1,342	70.47
HYUNDAI MOTOR BRASIL MONTADORA DE AUTOMOVEIS LTDA	439	291	51.16
CSP - COMPANHIA SIDERURGICA DO PECÉM	142	45	214.13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INDUSTRIA E COMERCIO	154	92	67.73
총계	6,872	5,267	

자료: MDIC 홈페이지, www.mdic.gov.br/sitio/interna/interna.php?area=5&menu=1161 (accessed December 2,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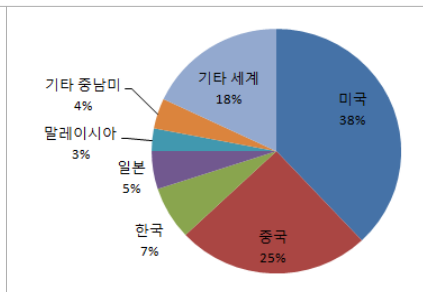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6%)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멕시코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도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위상(7%)을 차지한다.

그림 2-10. 브라질의 국별 중간재 수입 비중 비교



자료: ECLAC(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2014*, p. 19.

그림 2-11. 멕시코의 국별 중간재 수입 비중 비교



자료: ECLAC(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2014*, p. 19.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 브라질 사례

여기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대중남미 대표적인 수출시장인 브라질에서의 수출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²⁾ 먼저 대브라질 수출동기를 묻는 질문에 자체 시장개발을 위한 진출이 전체 응답의 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밖에 현지 바이어 요청 19.6%, 현지 생산공장 보유 5.9%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대브라질 수출실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전체 응답의 54.5%)이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하나 향후 브라질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브라질 수출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18%로, 수출실적이 저조하다고 응답한 기업과 그 비중이 같았다.

그림 2-12. 한국기업의 대브라질 수출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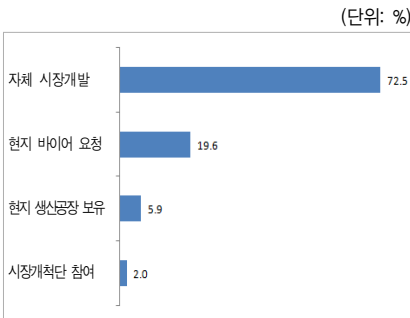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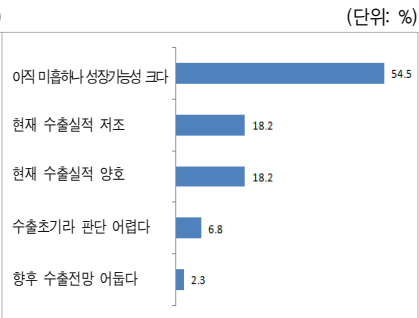


그림 2-13. 대브라질 수출실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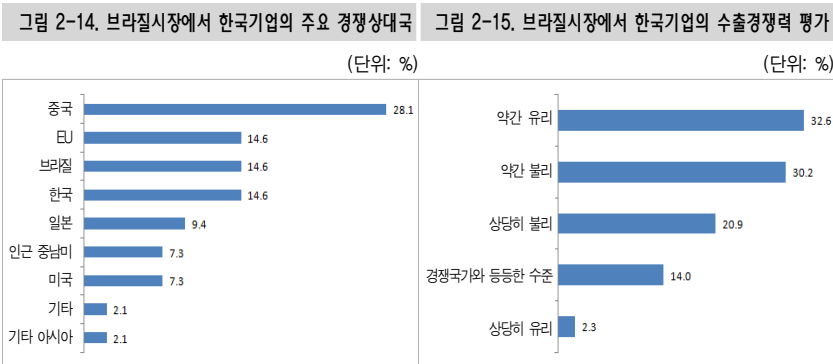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는 본 연구진이 남미공동시장(MECOSUR) 회원국 중 브라질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이다. 당시 255개 대브라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43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했다. MERCOSUR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김진오 외(2011), pp. 219~227 참고.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국은 중국(전체 응답의 28.1%)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한국(14.6%), 브라질 현지 기업(14.6%), EU(14.6%) 등이 주요 경쟁상대국으로 지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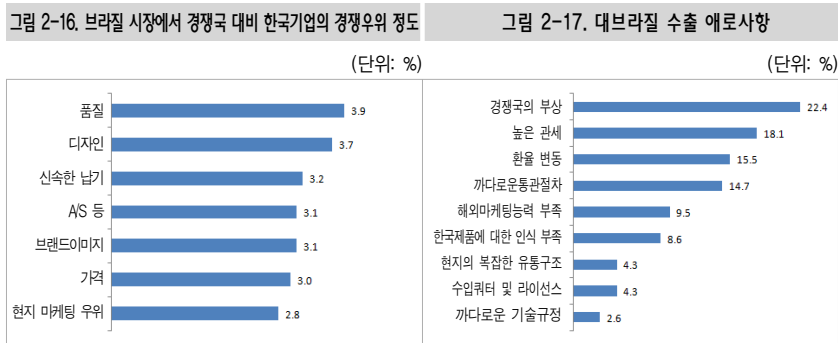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유리하다는 평가보다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51%가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간 불리(30.2%)하거나 크게 불리(20.9%)한 것으로 답변했다. 그에 반해 유리하다고 답변(상당히 유리 2.3%+약간 유리 32.6%)한 기업의 비중은 전체 응답의 34.9%에 불과했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볼 때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진출 확대로 브라질 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렇다면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질문에 많은 기업들이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에 반해 현지 시장에서 마케팅은 크게 열세에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전체 응답의 22.4%)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높은 관세(18.1%), 환율변동(15.5%), 까다로운 통관절차(14.7%), 해외마케팅 능력 부족(9.5%)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주: 척도는 1에서 5까지이며, 수치가 클수록 경쟁력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시장 진출 시 직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은 복잡한 사전 수입 허가 및 승인(19.4%)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부과(18.3%), 세관의 자의적 관세평가(14%), 전수검사로 통관지연(6.5%), 세관의 뇌물요구 및 고의적 행정지연(5.4%) 등이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되었다.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중남미 국가를 제외한 역외국가와 FTA를 체결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현지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타국과의 FTA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20%에 불과했다.

표 2-10. 대브라질 수출 시 경험하는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비중(%)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과금이 과도	18,3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8,6
세관의 자의적인 관세평가(품목분류, 최저 수입가격 제한)로 인한 과도한 관세부과	14,0
통관검사 시 전수검사로 인한 통관지연	6,5
세관원의 뇌물요구 및 고의적인 행정지연	5,4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 허가 및 승인 필요	19,4
전시품 및 샘플도 통관상의 특혜가 없고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4,3
안전규격 라벨링 등 제품표시에 따른 애로사항	4,3
현지 공인기술 인증 취득상의 어려움	2,2
인증 취득 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술요건 요구	4,3
특정 품목이 수입금지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출 원천봉쇄	0,0
기존 검사결과와 불일정으로 인한 중복검사	1,1
선적전 사전검사로 인한 불편(통관검사와의 중복)	4,3
수입쿼터를 통한 수량규제로 자유로운 수출이 어려움	4,3
기타	3,2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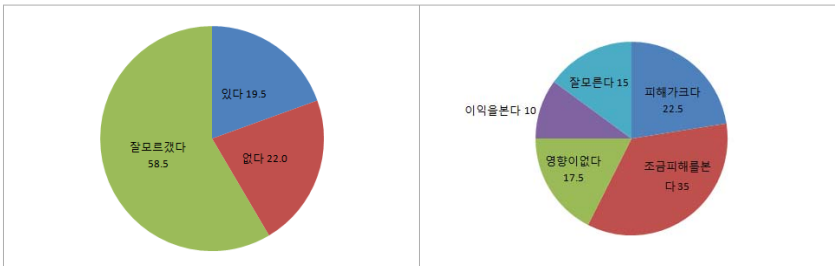
그러나 MERCOSUR가 현재 추진 중인 EU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기업의 57%가 양자간 FTA 체결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았다.

그림 2-18. 브라질 시장에서 FTA로 인한 피해와 우려

그림 2-19. MERCOSUR·EU 간 FTA가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

(단위: %)

(단위: %)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김진오 외(2011), pp. 219~2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별 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본 장에서는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한국의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내용은 각 국가의 시장점유율 변화, 중남미 시장에서 각국 제품의 비교우위, 국가 간의 수출경합도, 각국의 중남미 수출변화요인 등이다.

1. 시장점유율 분석

우선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2004~13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5%에서 3.3%로 0.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연도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3.7%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시장점유율 감소세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중남미 국별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브라질이 4.0%로 가장 높고 그 뒤를 페루(3.7%), 멕시코(3.5%), 칠레(3.5%) 등이 잇고 있다. 중남미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7%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았다. 칠레의 경우 2004년 FTA 발효 효과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 6.9%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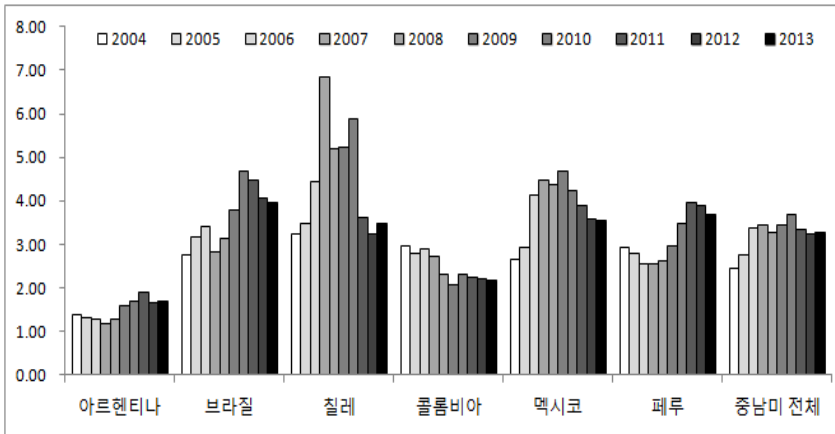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 중국, 일본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남미 시장에서는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아직까지

표 3-1. 중남미 주요국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전체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수출 증가율
아르헨티나	1.4	1.3	1.3	1.2	1.3	1.6	1.7	1.9	1.7	1.7	16.8
브라질	2.8	3.2	3.4	2.8	3.1	3.8	4.7	4.5	4.1	4.0	20.8
칠레	3.2	3.5	4.4	6.9	5.2	5.2	5.9	3.6	3.3	3.5	14.8
콜롬비아	3.0	2.8	2.9	2.7	2.3	2.1	2.3	2.3	2.2	2.2	11.0
멕시코	2.7	2.9	4.2	4.5	4.4	4.7	4.2	3.9	3.6	3.5	11.1
페루	2.9	2.8	2.6	2.6	2.6	3.0	3.5	3.9	3.9	3.7	20.5
중남미 전체	2.5	2.8	3.4	3.4	3.3	3.4	3.7	3.4	3.2	3.3	14.5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그림 3-1. 중남미 주요국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전체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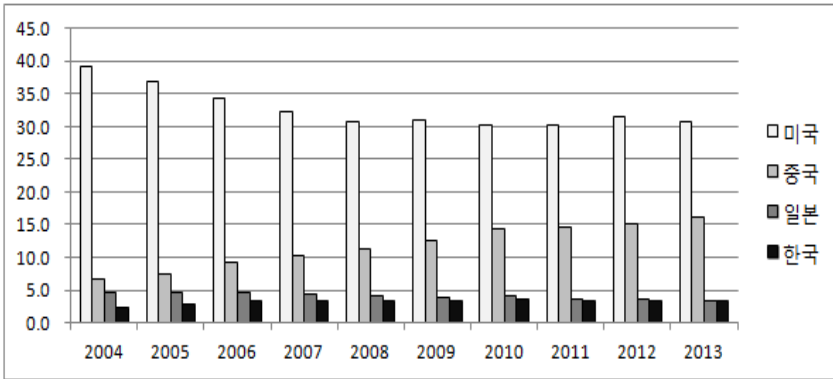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중국 (16.1%)의 약 두 배(30.6%)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2004년 6.7%→2013년 16.1%)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비중이 큰 폭의 감소(2004년 39.2%→2013년 30.6%)를 보이고 있어 양국의 위상이 바뀔 날도 머지않았다. 일본의 경우 최근 중남미 시장에서 위상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13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한국과 유사한 3.4%에 머물고 있다.

그림 3-2.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전체 품목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중남미 국별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2004~13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5대 수출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예외 없이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5대 수출시장에서 모두 큰 폭의 시장점유율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콜롬비아를 제외한 4대 수출시장에서 최근 10년간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 주요 경쟁국과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비교하면 새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세가 지

속되고 있는 한편으로 그간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의 점유율이 상승세로 반전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일본과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국별로 한국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 모두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표 3-2. 중남미 주요국에서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전체 품목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중남미
2004	한국	1.4	2.8	3.2	3.0	2.7	2.9	2.5
	중국	6.2	5.9	10.0	7.3	7.3	7.6	6.7
	일본	2.7	4.6	4.0	4.1	5.4	3.6	4.7
	미국	15.3	18.4	14.4	28.1	56.5	19.6	39.2
2008	한국	1.3	3.1	5.2	2.3	4.4	2.6	3.3
	중국	12.4	11.6	13.2	11.5	11.2	13.6	11.4
	일본	2.4	3.9	5.1	2.9	5.3	4.3	4.2
	미국	12.1	14.9	19.0	29.2	49.2	18.9	30.8
2010	한국	1.7	4.7	5.9	2.3	4.2	3.5	3.7
	중국	13.5	14.2	16.8	13.5	15.1	17.1	14.4
	일본	2.1	3.9	5.7	2.8	5.0	4.6	4.0
	미국	10.8	15.1	16.9	25.9	48.2	19.5	30.4
2011	한국	1.9	4.5	3.6	2.3	3.9	4.0	3.4
	중국	14.2	14.5	16.9	15.0	14.9	16.7	14.7
	일본	1.9	3.5	3.9	2.6	4.7	3.5	3.6
	미국	10.5	15.1	20.1	25.0	49.8	19.7	30.3
2012	한국	1.7	4.1	3.3	2.2	3.6	3.9	3.2
	중국	14.5	15.3	18.0	16.5	15.4	18.5	15.1
	일본	2.2	3.5	3.2	2.8	4.8	3.6	3.6
	미국	12.4	14.6	23.2	24.3	50.1	19.0	31.5
2013	한국	1.7	4.0	3.5	2.2	3.5	3.7	3.3
	중국	15.4	15.6	19.7	17.5	16.1	19.4	16.1
	일본	2.1	3.0	3.1	2.5	4.5	3.3	3.4
	미국	10.9	15.1	20.2	27.7	49.3	20.3	30.6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2. 시장별 비교우위 분석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별 비교우위 분석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시장이 아닌 중남미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그리고 한국의 경쟁국가 수출제품의 비교우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CA를 변형한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³⁾를 사용하는데, 그 계산은 [식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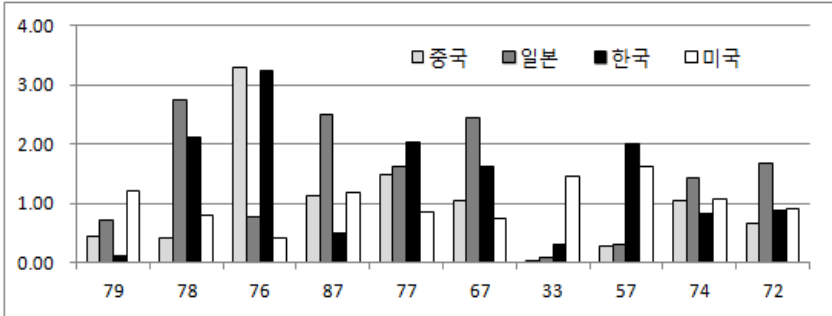
$$MCA^i = \frac{X_{latin}^i / TX_{latin}^i}{X_{latin} / TX_{latin}} \quad [\text{식 3-1}]$$

[식 3-1]에서 여기서 X_{latin}^i 는 특정 국가가 i상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는 금액, TX_{latin}^i 는 전 세계 국가가 i 상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는 금액, X_{latin} 는 특정 국가가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는 전체 금액, TX_{latin} 는 전 세계 국가가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는 금액이다.

분석대상은 SITC 2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10대 수출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일부 제품에 편중도가 높기 때문이며, 이 10대 품목은 중남미 전체 수출에서 약 85%의 비중을 차지한다. MCA 값이 1보다 크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그 품목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에서 그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석한다.

3) 김남두 외(1997), pp. 46~48.

그림 3-3.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10대 수출품의 비교우위(2013년)



주: 가로축은 각 품목의 SITC 2단위 코드이며, 세로축은 MCA 값을 의미.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자동차(78), 통신 및 녹음기기(76), 전기기계 장치와 기기(77), 철 및 강(67), 플라스틱(57)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기타 수송장비(79)는 한국이 중남미 시장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수출금액에서는 한국의 최대 수출품이다. 기타 수송장비(79)는 선박과 철도 등의 품목으로 선박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기도 하다. 또한 기타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87)도 한국이 비교우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의 비교우위가 낮은 기타 수송기기(79) 제품에서는 미국이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87)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주력 수출품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필요할 것이다.

표 3-3.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10대 수출품의 비교우위: 경쟁국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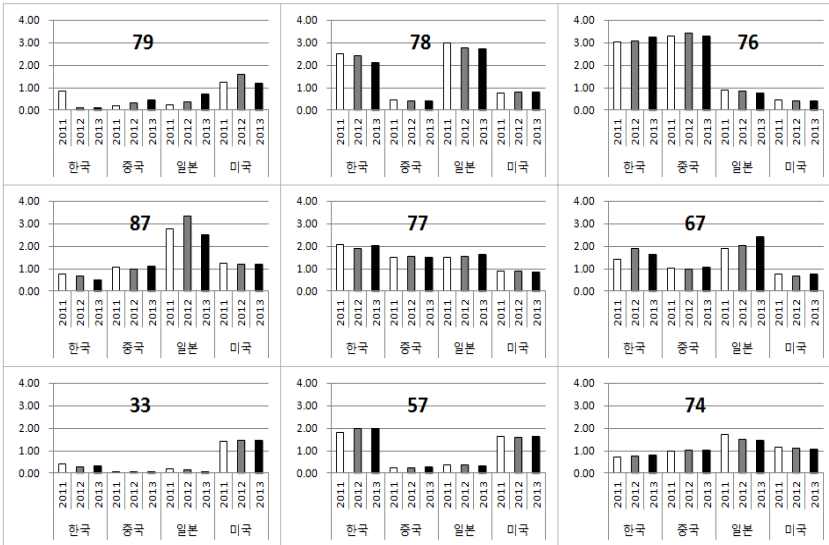
품목	2004년				2013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미국
기타 수송장비(79)	0,19	0,36	0,20	1,36	0,45	0,73	0,12	1,21
도로주행차량(78)	0,23	2,67	1,12	0,97	0,42	2,74	2,12	0,80
통신 및 녹음기기(76)	2,95	1,39	3,48	0,68	3,31	0,76	3,23	0,41
기타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87)	0,80	1,79	0,94	1,26	1,11	2,50	0,50	1,18
전기기계 장치와 기기(77)	1,48	1,94	2,26	1,08	1,49	1,62	2,04	0,84
철 및 강(67)	0,37	1,31	1,02	0,66	1,05	2,43	1,61	0,75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33)	0,07	0,02	0,21	0,45	0,01	0,08	0,30	1,45
플라스틱(57)	0,05	0,31	1,96	1,43	0,29	0,31	2,00	1,63
산업용 일반 기계 및 장비(74)	0,65	1,20	0,86	1,19	1,04	1,44	0,81	1,08
특수산업용 기계(72)	0,28	1,70	0,66	0,85	0,67	1,67	0,88	0,91

주: 품목은 SITC 2단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한국의 중남미 수출액에 따라 최대 수출품 79번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2010년 이후로 한국의 중남미 수출감소가 비교우위 변화와 관련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우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기타 수송기기(79) 제품에서 중국, 일본, 미국의 비교우위가 상승세에 있는 데 반해 유독 한국의 비교우위만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78) 제품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비교우위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반면 일본과 한국의 비교우위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에 비해 한국의 비교우위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 중 기타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87)와 석유 및 관련 제품(33)에서 한국의 비교우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중국이나 미국의 비교우위가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이나 일본의 비교우위는 일부 품목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3-4.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국의 비교우위 추이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3. 수출경합도 분석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와 수출품의 구성이 유사하다면 이 국가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국가간 수출품 구성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수출의 경합관계를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 ESI는 두 국가의 수출구조가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는데 [식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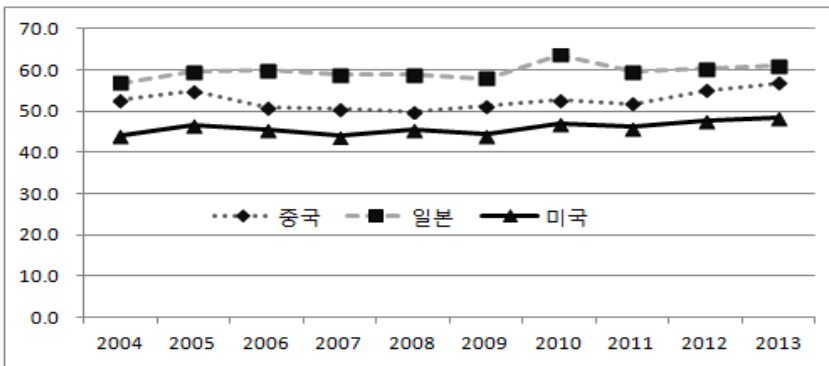
$$ESI = \sum_{i=1}^n \min\left(\frac{X_{i,a}}{X_a}, \frac{X_{i,b}}{X_b}\right) \times 100 \quad \text{[식 3-2]}$$

[식 3-2]에서 ESI는 a국가와 b국가가 특정 시장으로 수출하는 금액 중

각 i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최솟값을 더한 수치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중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금액 중 i품목이 차지하는 비중($\frac{X_{i,Korea}}{X_{Korea}}$)과 경쟁국이 중남미에 수출하는 금액 중 i품목이 차지하는 비중($\frac{X_{i,b}}{X_b}$)을 비교하여 최솟값을 구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이 값을 더하여 ESI를 구한다. 따라서 ESI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a와 b 국가의 수출구조가 유사하여 경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0'에 가까울수록 수출구조가 상이해 경쟁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품목은 SITC 3단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5.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의 수출경합도(SITC 3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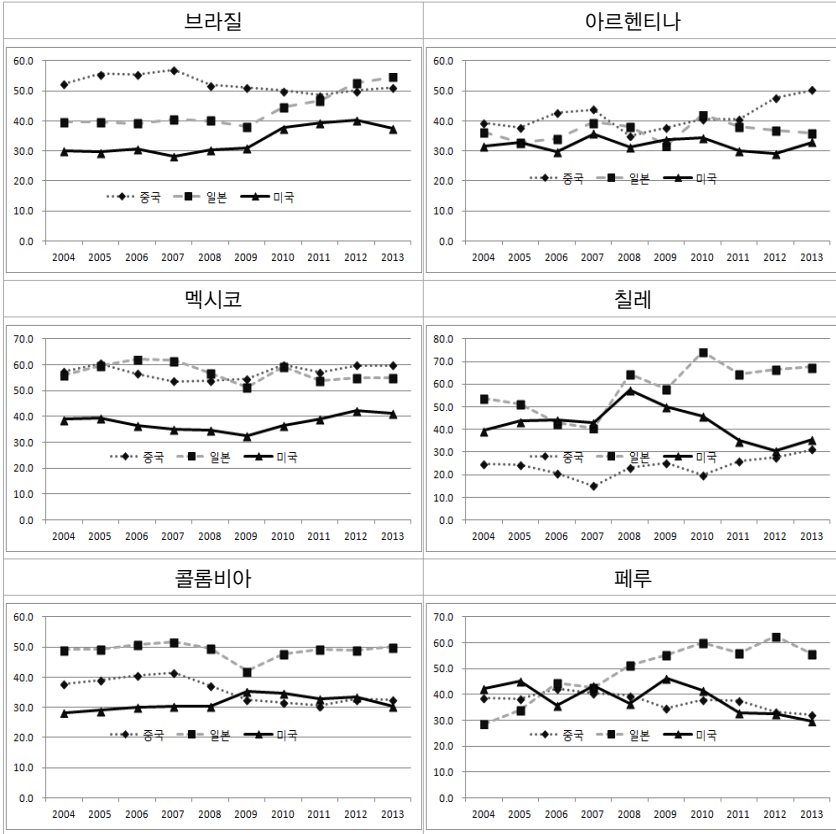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분석결과 2013년 기준으로 한국과 수출구조가 가장 유사한 국가는 일본으로 유사도가 61%에 달했다. 그 다음이 중국으로 56.8%를 나타냈으며, 미국은 48.3%로 유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수출구조의 유사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은 세 국가 모두와 수출

유사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수출유사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중남미 각 국가에서 한국과 경쟁국의 수출경합도(SITC 3단위)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중남미의 주요 국가에서 수출경합도 분석결과는 중남미 전체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남미 전체에서 한국과 수출구조가 가장 유사한 국가는 일본이지만 중남미의 최대 소비시장인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서는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남미 전체로는 한국과의 경합관계가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칠레에서는 2008년까지 한국과의 경합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최근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과 이 국가들의 수출제품 구성의 유사도도 높아지고 있어, 미국 및 중국과 한국 간에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변화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 인지를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CMS는 중남미 시장에서 특정 국가 제품의 수출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① 중남미의 수입수요 변화에 따른 효과, ② 중남미에서 특정 상품의 수요변화에 따른 효과 또는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함에 따른 효과, ③ 경쟁력 증가에 의한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⁴⁾

(1) 중남미의 수입수요 신장: $X_{latin} \times r_{latin}$

X_{latin} : 기준연도 특정 국가의 대중남미 수출액

r_{latin} : 연도별 중남미의 총수입 신장률

(2) 대중남미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 $\sum X_{latin,i} (1 + r_{latin,i}) - X_{latin} (1 + r_{latin})$

$X_{latin,i}$: 기준연도 특정 국가의 i상품 대중남미 수출액

4) 최인범(1993), pp. 43~47.

$r_{latin,i}$: 연도별 중남미의 i 상품 수입 신장률

(3)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강화에 의한 부분: $X_{t,latin} - \sum X_{latin,i} (1 + r_{latin,i})$

$X_{t,latin}$: t연도 특정 국가의 대중남미 수출액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중남미 수출은 전년 대비 8억 9,500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이 중 3억 5,700만 달러(39.9%)는 중남미 시장의 수입 수요 신장에 의한 것이고, 2억 9,700만 달러(33.2%)는 한국 수출상품이 중남미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으로 구성되어 발생하였으며, 2억 4,100만 달러(26.9%)는 한국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4.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불변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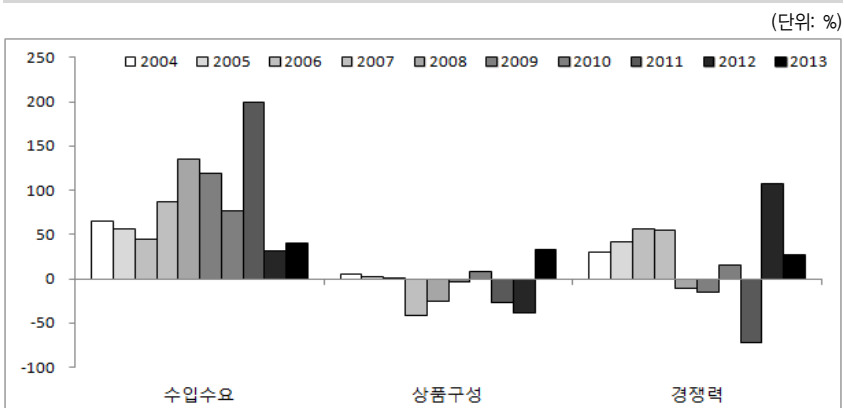
연도	수입수요 신장		수출상품 구성 유리성		경쟁력 강화		전년 대비 수입변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2004	1,567	65.2	129	5.4	709	29.5	2,405
2005	1,941	56.3	56	1.6	1,454	42.1	3,450
2006	2,668	44.2	12	0.2	3,351	55.6	6,030
2007	3,874	86.7	-1,833	-41.0	2,428	54.3	4,469
2008	5,021	135.5	-923	-24.9	-391	-10.6	3,707
2009	-6,485	118.8	181	-3.3	844	-15.4	-5,461
2010	6,517	76.9	699	8.2	1,259	14.9	8,476
2011	6,787	199.2	-898	-26.4	-2,481	-72.8	3,408
2012	-577	31.5	713	-38.9	-1,969	107.5	-1,832
2013	357	39.9	297	33.2	241	26.9	895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최근 10년간 한국의 중남미 수출을 불변시장점유율로 분석했을 때 한국의 중남미 수출은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

남미 시장의 수입수요 증가에 기인한 경향이 컸다. 상품 구성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음(-)의 값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이 수출하는 제품이 중남미에서 빠르게 수입이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국제품의 경쟁력도 한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2008~11년 기간에는 경쟁력이 음(-)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이룩하려면 수출상품을 다변화하여 중남미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고, 제품의 경쟁력 또한 키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불변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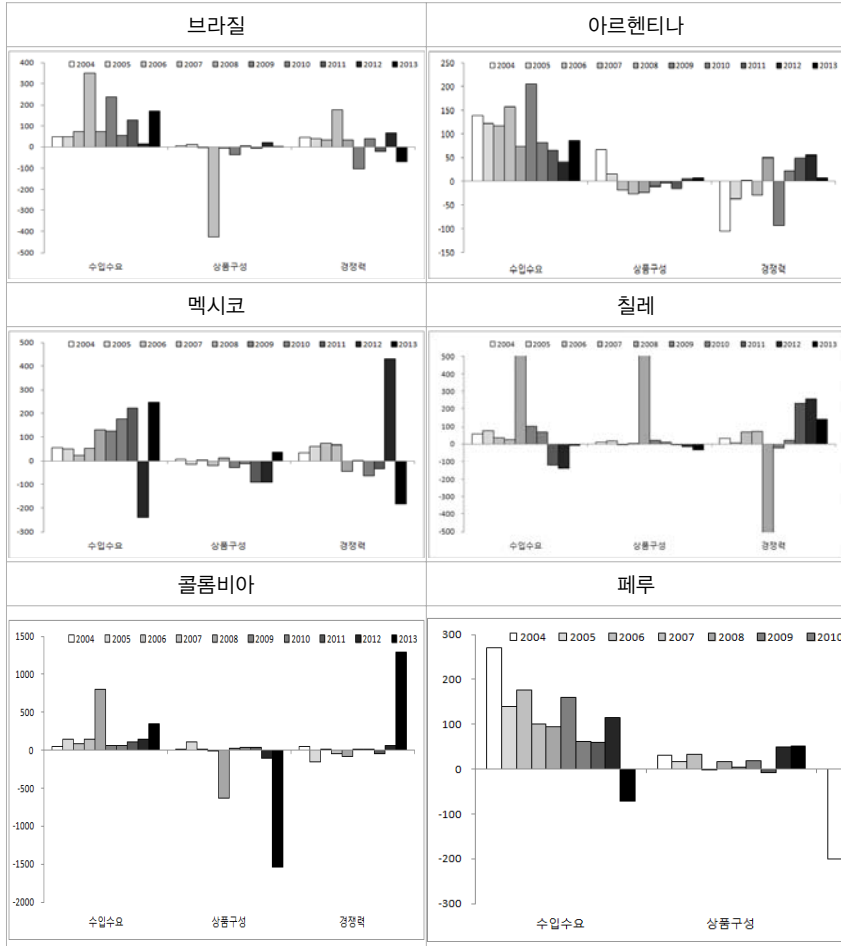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중남미 각 국가에서 한국의 불변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는 중남미 전체 시장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했다. 국별로 기여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각국의 수입수요 증가가 한국의 수출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상품 구성은 페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의 값이거나 기여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칠레에서는 중남미 전체에

비해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수출증가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중남미 각국 시장에서 한국의 불변시장점유율

(단위: %)



주: 칠레의 경우 2008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해 각 요소의 기여도가 수입수요 신장은 9,918%, 상품 구성 유리성은 1,536%, 경쟁력은 -11,354%를 기록했다. 따라서 2008년 값이 그래프에 모두 포함되도록 y축 스케일을 잡을 경우 다른 연도의 그래프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어 y축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500, -500으로 한정하였다.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 (accessed November 25, 2014).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의 불변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중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증가한 원인 중 중남미 수입수요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컸다. 수출상품의 구성에서도 경쟁국이 모두 유리하게 수출품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수출제품의 경쟁력이 수출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중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의 불변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연도	수입수요 신장		수출상품 구성 유리성		경쟁력 강화		전년 대비 수입변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한국	2004	1,567	65.2	129	5.4	709	29.5	2,405
	2005	1,941	56.3	56	1.6	1,454	42.1	3,450
	2006	2,668	44.2	12	0.2	3,351	55.6	6,030
	2007	3,874	86.7	-1,833	-41.0	2,428	54.3	4,469
	2008	5,021	135.5	-923	-24.9	-391	-10.6	3,707
	2009	-6,485	118.8	181	-3.3	844	-15.4	-5,461
	2010	6,517	76.9	699	8.2	1,259	14.9	8,476
	2011	6,787	199.2	-898	-26.4	-2,481	-72.8	3,408
	2012	-577	31.5	713	-38.9	-1,969	107.5	-1,832
	2013	357	39.9	297	33.2	241	26.9	895
일본	2004	3,015	69.5	84	1.9	1,237	28.5	4,335
	2005	3,676	88.6	66	1.6	407	9.8	4,149
	2006	4,571	107.2	374	8.8	-680	-16.0	4,264
	2007	5,415	140.5	-1,224	-31.8	-338	-8.8	3,853
	2008	6,511	147.6	-1,575	-35.7	-524	-11.9	4,413
	2009	-8,317	79.3	62	-0.6	-2,234	21.3	-10,489
	2010	7,322	87.4	932	11.1	124	1.5	8,379
	2011	7,370	231.7	-693	-21.8	-3,496	-109.9	3,181
	2012	-617	1769.4	904	-2590.7	-321	921.3	-35
	2013	404	-20.3	296	-14.9	-2,689	135.2	-1,989

표 3-5. 계속

국가	연도	수입수요 신장		수출상품 구성 유리성		경쟁력 강화		전년 대비 수입변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중국	2004	3,644	37.7	-107	-1.1	6,119	63.4	9,656
	2005	5,323	64.6	-444	-5.4	3,358	40.8	8,237
	2006	7,069	40.5	1,074	6.2	9,290	53.3	17,433
	2007	10,558	56.9	-5,305	-28.6	13,298	71.7	18,552
	2008	15,033	62.7	-3,318	-13.8	12,254	51.1	23,969
	2009	-22,465	156.6	3,875	-27.0	4,247	-29.6	-14,343
	2010	23,934	62.4	-1,477	-3.9	15,896	41.4	38,352
	2011	26,537	89.6	-7,987	-27.0	11,069	37.4	29,619
	2012	-2,533	-343.1	-91	-12.4	3,363	455.5	738
	2013	1,666	14.1	1,812	15.3	8,343	70.6	11,820
미국	2004	30,688	255.5	-2,809	-23.4	-15,869	-132.1	12,009
	2005	31,024	153.0	-1,888	-9.3	-8,860	-43.7	20,276
	2006	35,595	170.5	-3,951	-18.9	-10,768	-51.6	20,877
	2007	39,687	163.7	-6,918	-28.5	-8,527	-35.2	24,241
	2008	46,868	133.5	5,135	14.6	-16,883	-48.1	35,120
	2009	-60,663	103.0	877	-1.5	910	-1.5	-58,876
	2010	58,646	110.7	-1,062	-2.0	-4,614	-8.7	52,970
	2011	55,875	100.7	1,623	2.9	-2,031	-3.7	55,467
	2012	-5,216	-83.9	714	11.5	10,720	172.4	6,218
	2013	3,482	-72.6	-466	9.7	-7,812	162.9	-4,796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 요인 분석

1. 모형과 데이터
2. VAR 모형 분석결과
3. VAR 모형 분석결과 종합



1. 모형과 데이터

무역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글로벌 무역불균형,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발생원인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무역이 급감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특히 환율과 해외 시장의 수입수요 감소가 글로벌 무역불균형이나 전 세계 무역량 감소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⁵⁾ Obstfeld and Rogoff(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평가절하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⁶⁾ Bussiere, Chudik and Sestieri(2009)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와 미국, 중국, 독일의 수요가 전 세계 국가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총생산감소가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러화의 가치하락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의 수요변화는 유럽국가들의 수출에, 중국의 수요변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⁷⁾

최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중남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통상적인 수출수요 함수에 의하면 한 국가의 수출은 무역상대국의 수입수요, 수출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받는다.⁸⁾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이를 적용하면 중남미의 수입수요와 한국 수출품의 중남미 시장에서 상대가격이 수출수요함수의

5) Bussiere, Chudik and Sestieri(2009), p. 7.

6) Obstfeld and Rogoff(2005).

7) *Ibid*, p. 9.

8) Fagan and Mestre(2001).

설명변수가 된다. 이때 상품의 수출가격은 데이터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을 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Bussiere, Chudik and Sestieri(2009)⁹⁾의 연구에서도 상대 가격 대신 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갖게 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의 수출이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미국의 중남미 수출을 변수로 추가한다. 그리고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해당 경쟁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을 경쟁국의 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여 변수로 사용한다. 한국의 중남미 수출은 [식 4-1]로 표현할 수 있다.

$$X_t = a + \sum_{i=1}^k \Pi_i X_{t-i} + \epsilon_i \quad \text{[식 4-1]}$$

$$X_t = [Reer_t, LatinImport_t, CompImport_t, KoreaImport_t]$$

[식 4-1]에서 X_t 는 벡터이며 그 구성요소는 실질실효환율로 표시한 한국 상품의 상대가격, 중남미의 수입수요,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의 중남미 수출, 한국의 중남미 수출로 구성된다.

VAR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한 변수가 나머지 변수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런데 한국의 중남미 수출이 부진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발생한 현상이고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간에 한국과 경쟁국가의 중남미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증가하

9) Bussiere, Chudik and Sestieri(2009), p. 12.

는 수출데이터가 최근의 수출부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출금액보다는 수출증가율을 변수로 분석한다. 이때 과거의 수출은 증가하였더라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라면 최근의 수출부진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식 4-1]에 포함된 수출액 변수는 금액이 아니라 금액의 증가율로 사용한다.

우선 X_t 의 변수 행렬에서 Reer은 경쟁국과 비교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SITC 2단위의 상품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각 상품의 수출가격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경쟁국가의 실질실효환율을 비교한 값($\frac{ReerKorea}{ReerComp}$)을 한국 수출상품 상대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LatinImport는 중남미의 수입수요 증가율로, 중남미 국가들이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수입한 특정 상품 수입금액의 증가율로 측정한다. CompImport는 중남미 국가가 중남미에서 한국과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한 금액의 증가율이다. 이때 한국의 경쟁국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변수는 각 국가들의 중남미 수출증가율을 나타낸다. KoreaImport는 중남미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자료이며, 실질실효환율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에서, 무역데이터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하였다.

분석은 단순 VAR(Recursive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때 그레인저인과검정(Granger causality test) 결과 4개의 내생변수 중 가장 외생적인 변수는 Reer이기에 외생성에 따른 변수의 순서를 Reer, LatimImport, CompImport, KoreaImport 순으로 정하였다. 축소모형(Reduced form)에서 구조모형(Structural form)을 복원할 때는 콜레스키(Choleski) 방식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이 중남미에 수출하는 주력 상품 중 최근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상품으로 선정하였다. SITC 2단위 기준으로 한국이 중남미에 수출하는 상위 10개 품목은 자동차, 기타 수송장비, 통신 및 녹음기기, 전기기계장치, 철과 강,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 등이다. 이 10개 품목은 2010~13년 동안 한국이 중남미에 수출하는 전체 금액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한국의 중남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SITC 2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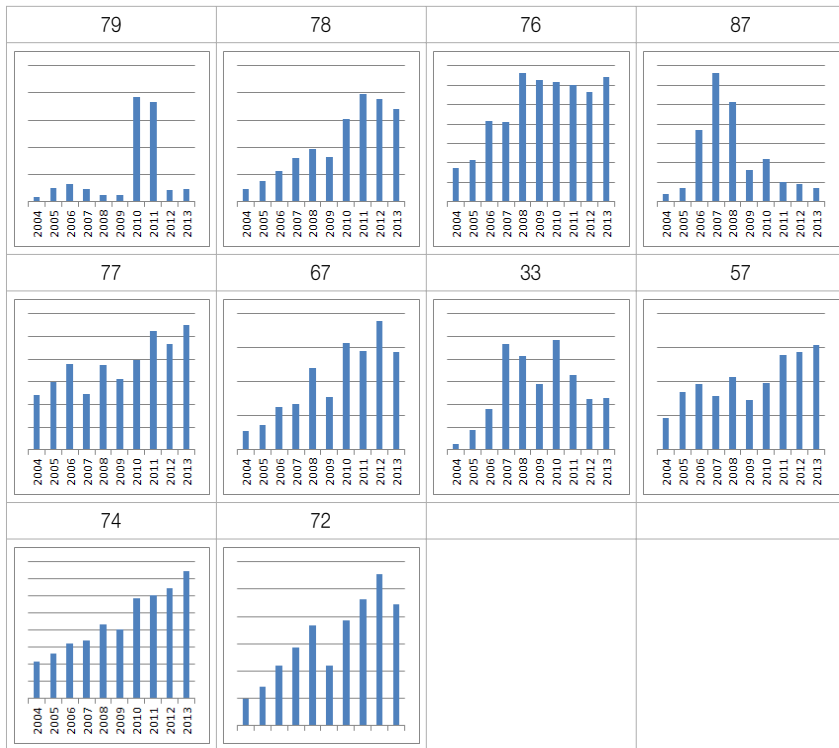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품목 명	2010~13년 평균 수출(금액)	비중
79	기타 수송장비	8,803	23.6
78	도로주행차량	8,233	22.0
76	통신 및 녹음 기기	4,063	10.9
8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	2,480	6.6
77	전기기계 장치와 기기	2,118	5.7
67	철 및 강	1,958	5.2
33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1,315	3.5
57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1,313	3.5
74	산업용 일반 기계 및 장비	1,109	3.0
72	특수산업용 기계	1,054	2.8
상위 10대 품목		32,447	86.9
중남미 전체 수출품목		37,348	100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상위 10대 수출상품 중 일부 품목이 최근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중남미 전체 수출의 부진을 가져오고 있다. SITC 2단위 품목번호 중 79, 78, 76, 87, 67, 33번 품목의 수출이 최근 감소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품목들을 대상으로 VAR 분석을 실시하여 수출부진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1. 한국의 중남미 상위 10대 수출품목 수출 추이(SITC 2단위)



자료: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 (accessed 2014, November, 25).

VAR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남미의 수입수요, 한국과 경쟁국의

중남미 수출데이터에는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 실질실효환율에는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 4-1]에서 단위근이 있는 변수는 실질실효환율 1개이기 때문에 단위근이 있는 변수 간의 공적분관계를 고려할 상대변수가 없다. 따라서 VAR로 분석하되 실질실효환율은 차분값을 사용한다. 이때 [식 4-1]과 이에 대입되는 변수는 [식 4-2]와 같이 변하게 된다.

$$X_t = a + \sum_{i=1}^k \Pi_i X_{t-i} + \epsilon_i \quad \text{[식 4-2]}$$

$$X_i = [\Delta Reer_t, LatinImport_t, CompImport_t, KoreaImport_t]$$

표 4-2. 수출부진요인 분석을 위한 단위근검정

변수명		ADF		Phillips-Perron		
		상수항	상수항+추세	상수항	상수항+추세	
실질실효환율	한국/일본	-3.0**	-3.4*	-2.1	-2.4	
	한국/중국	-1.4	-2.8	-1.54	-2.3	
	한국/미국	-2.5	-1.7	-2.0	-1.8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율	79	-2.8*	-5.9***	-6.13***	-5.9***	
	78	-4.27***	-4.51***	-4.41***	-4.51***	
	76	-5.0***	-5.3***	-5.0***	-5.3***	
	87	-3.8***	-3.7***	-3.8***	-3.7***	
	67	-5.2***	-5.2***	-5.4***	-5.3***	
	33	-4.7***	-4.9***	5.2***	-9.0***	
경쟁국의 수출 변화율	일본	79	-5.1***	-5.5***	-5.1***	-5.4***
		78	-4.8***	-4.7***	-7.2***	-5.5***
		76	-4.7***	-4.5***	-4.7***	-4.5***
		87	-3.0**	-2.9	-3.1**	-3.2*
		67	-6.3***	-6.3***	-6.3***	-6.3***
		33	-5.2***	-5.3***	-5.2***	-5.3***

표 4-2. 계속

변수명			ADF		Phillips-Perron	
			상수항	상수항+추세	상수항	상수항+추세
경쟁국의 수출 변화율	중국	79	-5.4***	-5.6***	-5.5***	-6.0***
		78	-5.3***	-5.6***	-5.3***	-5.9***
		76	-6.8***	-7.9***	-6.4***	-7.5***
		87	-5.8***	-6.1***	-5.7***	-6.1***
		67	-6.1***	-6.5***	-6.0***	-6.5***
		33	-3.1*	-3.5*	-4.3***	-4.2***
	미국	79	-3.9***	-3.9**	-6.9***	-6.8***
		78	-4.6***	-5.3***	-4.6***	-5.3***
		76	-3.8***	-4.7***	-3.8***	-4.7***
		87	-3.7***	-4.4***	-3.8***	-4.4***
		67	-4.5***	-4.5***	-5.0***	-4.7***
		33	-4.9***	-4.9***	-4.9***	-5.2***
한국의 수출변화율	79	-4.7***	-5.3***	-4.7***	-5.3***	
	78	-6.7***	-6.8***	-6.7***	-6.7***	
	76	-5.7***	-5.7***	-5.6***	-5.6***	
	87	-5.2***	-5.2***	-5.3***	-5.3***	
	67	-6.7***	-7.2***	-6.7***	-7.7***	
	33	-2.8°	-6.1***	-27.8***	-64.8***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2. VAR 모형 분석결과

앞절에서 명시한 모델을 통해 충격반응함수(Impulse-Response)를 추정하여 한국의 중남미 수출이 한국의 상대적인 실질실효환율 증가, 경쟁국의 수출증가율 상승, 중남미의 수입수요 증가율 상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각 변수들이 1표준편차만큼 증가했을 때

한국의 중남미 수출이 반응하는 결과를 보일 것이다. 이때 충격반응함수에서 각 변수에 충격을 줄 때,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 콜레스키(Choleski) 방식을 적용한다.

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변화의 영향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이 경쟁국에 비해 증가했을 때, 즉 절상되었을 때 한국의 중남미 수출이 반응하는 정도를 시간에 따라 누적한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이 일본이나 중국, 미국과 비교하여 증가했을 때 한국 주요 수출품의 중남미 수출증가율이 반응하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으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진다면 한국의 중남미 수출변화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충격반응함수에 의하면 95% 신뢰구간에서 한국의 수출변화율이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 상품은 철 및 강(SITC 67)과 섬유 관련 제품(SITC 33)이다. 철 및 강(SITC 67)의 경우 중국에 비해 한국의 환율이 1표준편차¹⁰⁾ 증가했을 때 1년 후에 한국의 중남미 수출변화율이 약 4%포인트 감소하였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환율이 증가했을 때는 중남미 수출이 1년 후 약 0.4%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제품에서는 한국 환율의 상대적인 증가가 중남미 수출증가율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한국의 중남미 수출변화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결과

10) 한국과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을 비교한 $\frac{Reer_{Korea}}{Reer_{China}}$ 은 평균이 0.006이며 표준편차는 0.079이다.

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환율은 중남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3. 실질실효환율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누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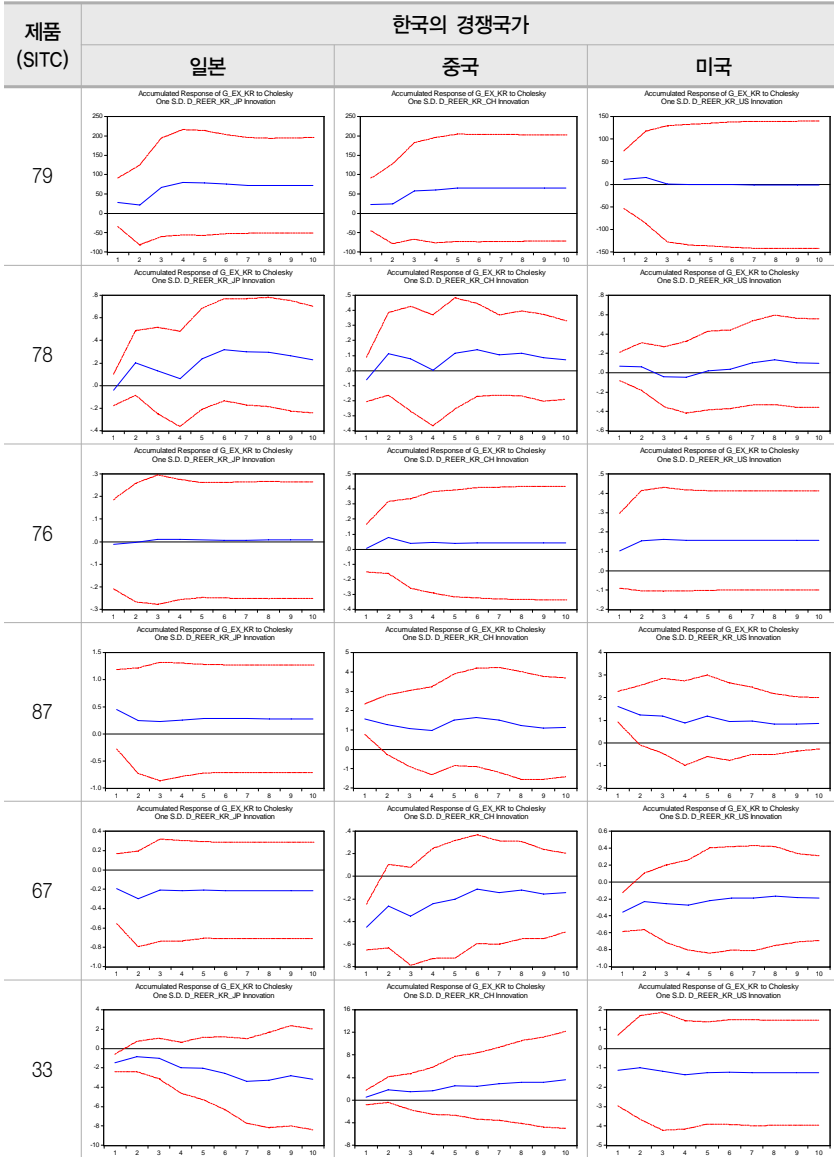
제품 (SITC)	한국의 경쟁국가		
	일본	중국	미국
79	?	?	?
78	?	?	?
76	?	?	?
87	?	+	+
67	?	-	-
33	-	?	?

주: 1) 한국의 상대실질실효 환율은 $\frac{Reer_{Korea}}{Reer_{foreign}}$ 으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의 실질실효환율 비율로 구한 값.

2) [식 4-1]으로 표시되는 VAR은 경쟁국가에 따라 변수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경쟁국이 일본, 중국, 미국일 때 각각의 VAR 결과를 나타낸다.

3) ‘?’ 표시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수출변화율의 증가 또는 감소를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실질실효환율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누적 반응



주: 1) 세 개의 선 중 아래쪽과 위쪽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2) 가로축은 1년 단위의 기간을, 세로축은 한국의 수출증가율의 %포인트 변화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나.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의 영향

중남미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VAR로 분석한 결과 석유 관련 제품(SITC 33)을 제외한 경우 모든 제품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수송기기(SITC 79)와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는 95% 신뢰구간이 증가와 감소에 걸쳐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결과가 증가했다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SITC 78)는 중남미 수입수요의 변화율이 1표준편차(0.39%포인트)만큼 증가한 후 2년 동안 한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도 약 0.3%포인트 내외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녹음 기기(SITC 76)는 중남미 수입수요가 1표준편차(0.39%포인트) 만큼 증가한 후 약 0.3~0.4%포인트 범위에서 한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이 높아졌다. 철 및 강(SITC 67)은 한국의 경쟁국가가 일본인 경우의 모델에서는 중남미 수입수요가 증가한 2년 후에 한국의 수출변화율이 증가하는 게 뚜렷해지며 약 0.3%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의 경쟁국가가 미국인 모델에서는 1~2년 기간 동안 수출변화율이 약 0.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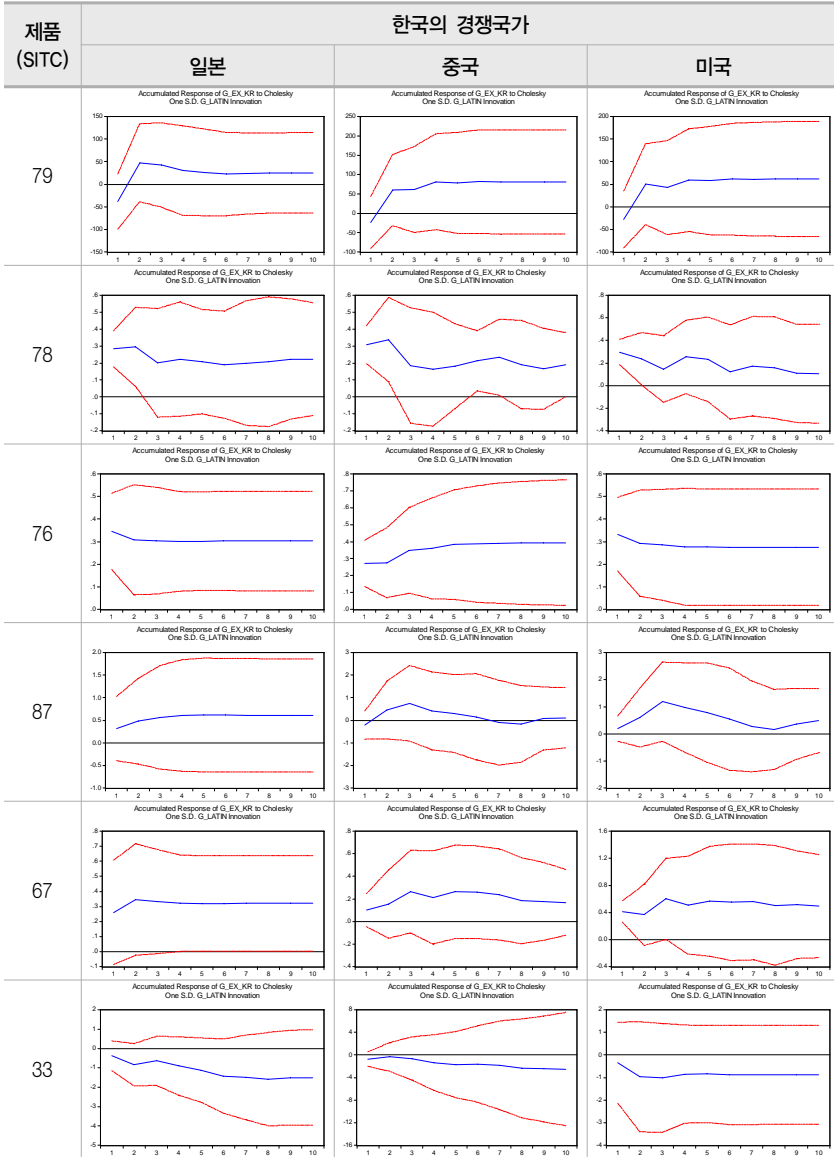
표 4-4.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반응

제품 (SITC)	한국의 경쟁국가		
	일본	중국	미국
79	?	?	?
78	+	+	+
76	+	+	+
87	?	?	?
67	+	?	+
33	?	?	?

주: 1) [식 4-1]으로 표시되는 VAR은 한국의 경쟁국가에 따라 변수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경쟁국이 일본, 중국, 미국인 경우 각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환율이 증가했을 때 한국의 중남미 수출이 변화한 정도를 나타낸다.

2) '?' 표시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수출변화의 증가 또는 감소를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반응



주: 1) 세 개의 선 중 아래쪽과 위쪽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2) 가로축은 1년 단위의 기간을, 세로축은 한국의 수출증가율의 %포인트 변화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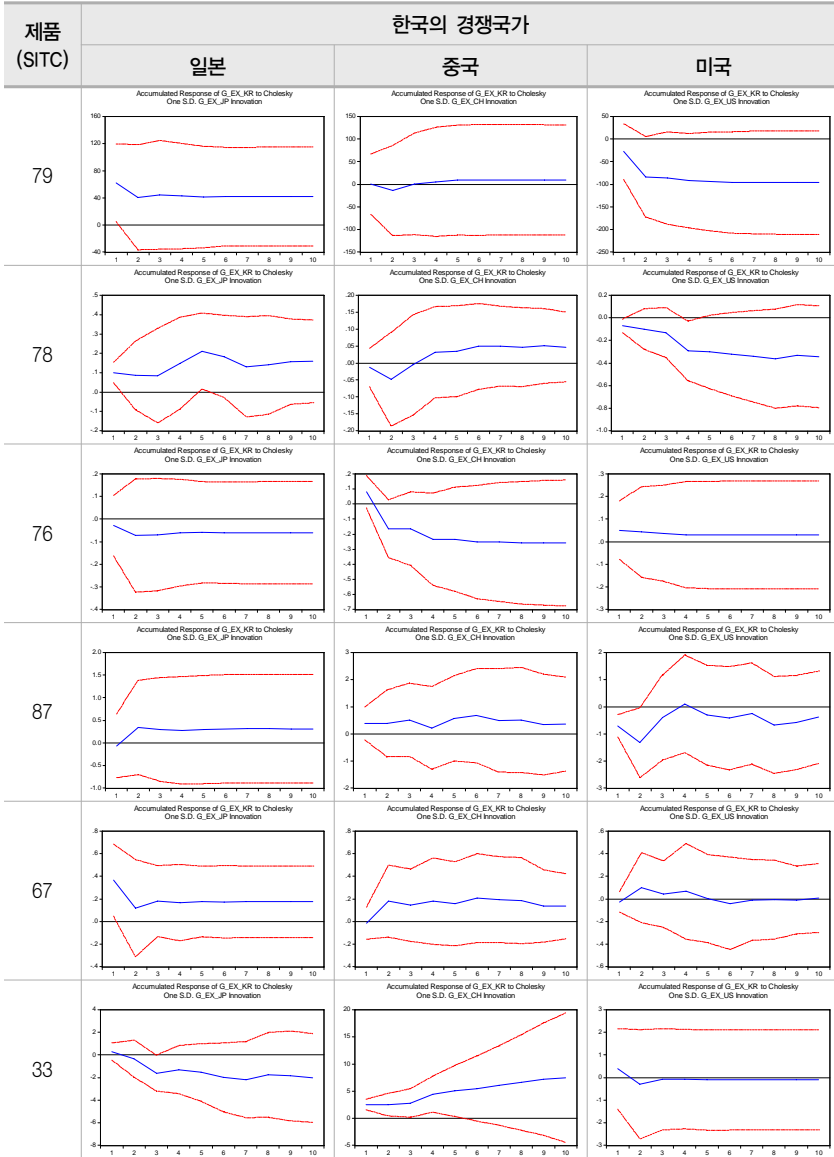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 경쟁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 변화의 영향

제3장의 수출경합도 분석에서 한국의 수출품은 일본과 상품 구성이 가장 유사하고, 그 뒤를 중국, 미국이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일본 및 중국과 경쟁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AR 분석에서는 실제로 이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했을 때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다. 만약 한국과 이 국가들이 경쟁관계에 있다면 이 국가들의 중남미 수출변화율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중남미 수출변화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충격반응을 분석한 결과 경쟁국가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는 사례는 오히려 미국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과 수출유사도는 낮지만,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기타 수송기기(SITC 79)와 자동차(SITC 78), 그리고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에서 미국의 빠른 수출증가가 한국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의 수출품 구성의 유사도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서는 가장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자동차(SITC 78), 통신 및 녹음 기기(SITC 76), 철 및 강(SITC 67), 석유 관련 제품(SITC 33)에서 이 국가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증가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제품들에서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경쟁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4. 경쟁국의 수출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반응



주: 1. 세 개의 선 중 아래쪽과 위쪽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2. 가로축은 1년 단위의 기간을, 세로축은 한국의 수출증가율의 %포인트 변화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4-5. 경쟁국의 수출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남미 수출 반응

제품 (SITC)	한국의 경쟁국가		
	일본	중국	미국
79	?	?	?
78	+	+	+
76	+	+	+
87	?	?	?
67	+	?	+
33	?	?	?

주: 1) [식 4-1]으로 표시되는 VAR은 한국의 경쟁국가에 따라 변수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경쟁국이 일본, 중국, 미국 일 때 각각의 VAR 결과를 나타낸다.

2) '?' 표시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수출변화의 증가 또는 감소를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라. 예측오차 분산분해

지금까지 한국의 중남미 수출이 세 가지 변수인 경쟁국과 비교한 한국의 환율, 중남미의 수입수요, 경쟁국의 수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 변수들이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는 각각 상이할 수 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는 한국의 중남미 수출변화를 설명하는 데 각 설명변수들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표 4-6]은 경쟁국이 일본인 경우,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상대환율, 중남미의 수입수요, 일본의 중남미 수출, 한국의 중남미 수출의 과거값이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연도는 각 설명변수값에 변동이 발생한 이후의 시간간격을 의미한다. 설명변수에 변동이 생긴 지 2년 후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기타 수송기기(SITC 79)의 경우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변동 중 2.6%는 환율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고, 27.3%는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일본의 수출증가가 기여한 정도는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56.5%는 한국의 중남미 수출의 자체적인 변동에 의해 발생하였다.

품목 전체적으로 한국의 중남미 수출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남미의 수입수요 변화였다. 그러나 각 변수의 기여도는 제품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 수송기기(SITC 79)와 철 및 강(SITC 67)은 환율보다는 일본의 수출이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자동차(SITC 78), 전문, 과학, 통계 기구 및 장치(SITC 87), 석유 관련 제품(SITC 33)은 일본의 수출변화보다는 일본과 비교한 한국 환율의 변화가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절의 충격반응함수 결과에서 일본 석유제품(SITC 33)의 수출증가는 한국의

표 4-6. 한국의 중남미 수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경쟁국이 일본인 경우

수출품	연도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중남미의 수입수요	일본의 수출증가율	한국의 수출증가율
79	1	3.4	6.2	16.7	73.5
	2	2.6	27.3	13.4	56.5
78	1	1.5	79.2	10.0	9.1
	2	37.1	50.4	6.4	5.9
76	1	0.05	53.5	0.3	46.0
	2	0.07	52.4	1.2	46.2
87	1	6.5	3.1	0.1	90.1
	2	7.2	3.7	4.9	84.0
67	1	4.9	8.9	17.6	68.4
	2	5.1	7.9	20.6	66.3
33	1	40.5	2.6	1.6	55.0
	2	40.7	5.4	7.4	46.3

자료: 저자 작성.

수출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분해를 보면 일본의 수출증가율이 한국의 수출증가율에 기여하는 정도는 7.4%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신 및 녹음 기기와 석유제품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고 일본으로 인해 수출이 둔화되는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영향의 크기는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쟁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출증가율 변화보다는 중남미의 수입수요 변화나 한국의 상대적인 환율변화가 한국의 중남미 수출변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수송기기(SITC 79)나 자동차(SITC 78)는 중국 수출의 증가가 한국 수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철 및 강(SITC 67)의 경우 중국의 수출증가가 한국의 수출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한국 실질실효환율의 상대적인 증가는 수출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표 4-7. 한국의 중남미 수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경쟁국이 중국인 경우

수출품	연도	중국과 비교한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중남미의 수입수요	중국의 수출증가율	한국의 수출증가율
79	1	1.9	2.0	0.0	96.0
	2	1.5	21.9	0.6	75.8
78	1	3.0	82.1	0.1	14.6
	2	21.3	62.9	0.9	14.7
76	1	0.03	51.5	4.6	43.7
	2	2.49	35.5	31.0	30.1
87	1	53.9	1.0	3.2	41.7
	2	49.9	9.7	2.8	37.3
67	1	63.5	3.1	0.07	33.2
	2	55.0	2.9	8.9	32.9
33	1	2.4	6.2	70.5	20.7
	2	18.2	6.1	54.0	21.5

자료: 저자 작성.

앞절의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기타 수송기기(SITC 79), 자동차(SITC 78),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의 경쟁관계에서 미국의 이 제품들 수출증가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낮아졌다. 분산분해에서는 한국의 전체 수출변화에서 미국의 수출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그 결과 앞서 언급한 3개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 수출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는 충격반응함수에서 한국의 환율이 증가하면 중남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한국의 중남미 수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경쟁국이 미국인 경우

수출품	연도	미국과 비교한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중남미의 수입수요	미국의 수출증가율	한국의 수출증가율
79	1	0.4	3.2	3.3	92.9
	2	0.4	21.02	11.8	66.7
78	1	3.7	77.5	4.3	14.3
	2	3.4	75.6	4.7	16.1
76	1	4.8	50.6	1.1	43.3
	2	5.8	49.1	1.1	43.8
87	1	69.0	0.9	13.1	16.7
	2	60.7	4.5	19.6	14.9
67	1	36.8	50.6	0.2	12.2
	2	36.6	45.3	4.3	13.5
33	1	6.5	0.5	0.7	92.1
	2	6.3	2.4	2.9	88.2

자료: 저자 작성.

3. VAR 모형 분석결과 종합

이상에서의 실증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남미의 수입수요, 경쟁국과 비교한 한국의 환율, 경쟁국의 중남미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중남미의 수입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 한국의 수출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중남미 수입수요가 한국의 수출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세 변수 가운데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의 경우, 경쟁국가에 비해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이 증가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철 및 강(SITC 67)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상품에서는 증가나 감소를 판단하기가 통계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철 및 강(SITC 67)에서 한국의 상대적인 환율의 증가가 한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의 수출증가율 변화가 한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와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이나 중국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면 한국의 수출도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일부 품목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수출품목에서 실제 경쟁하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과 수출품목 구성의 유사도는 낮지만 오히려 한국과 경쟁관계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기타 수송장비(SITC 79), 도로주행차량(SITC 78),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중남미 수출이 한국의 중남미 수출둔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가격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수출가격이 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중남미의 수입수요, 경쟁국가의 중남미 수출, 경쟁국과 비교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로 분석이 제한된 것도 이번 연구가 갖는 한계이다. 향후에 관련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양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

1. 분석결과 종합
2.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분석결과 종합

이상에서 분석한 정성적·정량적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편승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04~13년) 중남미의 연평균 수입증가율(10.7%)은 전 세계 수입증가율(7.9%)은 물론 이전 10년간(1994~2003년)의 수입신장세(5.9%)를 크게 앞섰다. 2000년대 중남미의 높은 수입증가세는 중남미 각국이 역외국과 추진한 적극적인 FTA 정책에도 힘입은 바 컸다. 높은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중남미의 개방도(중남미 GDP에서 수출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둔화에 따른 수입감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조치로 개방도는 후퇴하는 양상이다. 2000년대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선진국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데 반해 개도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70%에서 2011년에는 50.6%로 19.4%포인트나 감소했다.

다음으로 한국의 무역통계를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특징을 조명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대중남미 수출은 연도별로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국별로 최근 3년간 수출감소는 주요 선박 수출국인 케이맨군도,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이외에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대한 수출하락에 기인했다. 품목별로는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수출하락을 부추겼다. 둘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품목별 및 국별 편중도가 매우 높

았다. 2013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편중도(대중남미 총수출 대비)는 72.4%에 달했으며, 10대 수출국에 대한 집중도는 90%를 넘었다. 특히 대중남미 양대 수출대상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4%에 달했다. 셋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자본재나 원자재 등 중간재의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70%를 크게 상회한다. 넷째, 품목별로 선박이 대중남미 수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선박 수출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카리브 및 파나마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한국 총무역흑자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현지 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시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을 지목할 만큼 중국과의 경쟁은 중남미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등 가격 외적인 요소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비관세장벽 중에서 복잡한 사전 수입허가(19.4%), 추가적인 세금부과(18.3%), 세관의 자의적 관세평가(14%)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역외국과 FTA를 체결한 사례가 적어 FTA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크지는 않으나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가 체결될 경

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3장에서는 다양한 무역지수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했다. 먼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별로는 칠레에서의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현저했다. 둘째, 비교우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상품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수송기기에서 비교우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셋째 경쟁국과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경쟁국 중에서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중국, 미국이 잇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2011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다. 넷째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남미 시장의 수요증가에 의지한 측면이 컸다.

마지막으로 벡터자기회귀(VAR)모형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증가는 중남미 수입수요 증가에 기대하는 측면이 컸다. 그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중남미의 경제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철 및 강(SITC 67)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실효환율 변화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는 앞서 대브라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기업이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디자인 등 비가격요소를 지목했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경쟁력보다는 가격 외적인 요소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

미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중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근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에 따른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부진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중남미 지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였다. 중남미 지역의 수입은 최근 10년간(2004~13년) 연평균 10.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 수입성장세는 경제성장둔화를 반영해 연평균 4%로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수입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4.9%나 하락했다. 둘째,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은 현지 시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서 연유했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수출경합도 및 벡터자기회귀(VAR)모형 분석 등에서 확인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 중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셋째,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경쟁국과 비교해, 특히 부진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수출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수출은 일부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수출현상 심화, 빈약한 수출품목 수 등으로 중남미 경제의 부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수출상품의 비중(2013년)이 59%인 데 반해 중남미 수출에서 그 비중은 72%에 달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편중도 심화로 중남미 각국의 빈번한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2.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시장인 중남미에서 수출시장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였다.

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다변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일부 국가 및 주종 수출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상위 10대 수출국과 상위 10대 수출품에 대한 의존도는 각각 90%, 72%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총수출에서 상위 10대 수출국(65%) 및 상위 10대 수출품(59%)에 대한 편중도를 크게 앞선다. 이 같은 수출편중도 심화로 한국은 구조적으로 중남미 각국의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며, 중남미의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출품목 수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출품목 수가 크게 증가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품목의 1/3, 한국의 총수출품목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데 반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이 더딘 것도 문제다. 수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한국의 중남미 진출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중남미 시장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아직까지 크게 생소하고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품목의 쏠림현상 심화, 빈약한 수출품목 수, 중소기업

의 수출저조 등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중남미의 경기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일부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무역집중도¹¹⁾ 분석을 통해 볼 때 중남미

표 5-1.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무역집중도

대상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르헨티나	0.51	0.46	0.45	0.46
볼리비아	0.11	0.11	0.14	0.15
브라질	1.37	1.66	1.46	1.27
칠레	1.58	1.01	0.98	0.97
콜롬비아	1.09	0.94	0.80	0.71
코스타리카	0.45	0.56	0.58	0.40
도미니카공화국	0.31	0.27	0.28	-
에콰도르	1.37	1.16	1.08	1.07
엘살바도르	0.23	0.31	0.35	0.45
과테말라	0.73	0.66	0.68	0.71
온두라스	0.49	0.51	0.57	-
멕시코	0.93	0.88	0.77	0.80
니카라과	1.20	1.25	0.98	1.08
파나마	7.70	5.54	9.99	8.41
파라과이	0.41	0.51	0.44	0.53
페루	1.00	1.15	1.10	1.04
우루과이	0.59	0.64	0.50	1.04
베네수엘라	0.63	0.40	0.28	0.31

자료: 저자 작성.

11) 무역집중도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양자 무역의 집중도를 보여준다. 무역집중도(Iij)는 i국가에서 j국가로의 전체 수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i국가에서 j국가로의 수출(X_{ij}/X_i)이 세계 수출(M_w)에서 j국가 전체 수입(M_j)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양자 무역집중지수가 1 이상(이하)이면, 양국은 세계 전체 무역에서 상대국의 비중으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적은) 양자무역을 하는 것이다. 무역집중지수가 1을 하회할 경우 이는 한국의 현지 시장에 대한 관심 정도가 부족해 아직까지 충분히 진출하지 못했다고 판단, 향후 시장개척 여하에 따라 진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중 현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이다.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단 파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출품목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결과, 한국은 중남미 시장에서 수입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입품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 수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중남미 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부상에 따라 수요가 급부상하는 교육, 보건 및 교통 분야에서의 수출기회를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남미 각국이 국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정책 및 인프라개발정책에 따라 파생되는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경제특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남미 각국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전력, 통신,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대한 투자를 적극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 및 산업 설비, 건설장비 등 관련 품목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빈곤층(BOP: Bottom of Pyramid) 시장에 대한 공략도 필요하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힘입어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중남미에서 빈곤층의 비중은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50%에 달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저가 시장보다는 품질과 디자인을 경쟁우위로 하고 있는 중고가 시장에 집중하는 모양

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성장속도가 빠른 빈곤층을 겨냥한 저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중남미 빈곤층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²⁾

수출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유통 다국적기업과의 협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남미 유통업체의 높은 경쟁력과 폐쇄적인 유통구조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유통업체가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남미 유통부문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Ripley, Falabella, Cencosud 등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유통업체와 우리 업체 간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알선할 필요가 있다.¹³⁾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해 중남미 소지역 경제통합체별로 ‘통합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2004년부터 멕시코 멕시코시티, 브라질 상파울루에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중남미 경제통합체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겨냥해 칠레, 페루, 콜롬비아 3개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12) 권기수 외(2013), p. 241.

13) 권기수 외(2013), pp. 238-239.

나.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강구

한국은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1987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2009년 이후 그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언제든지 중남미 국가들의 통상마찰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하다. 국내산업 보호나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해 빈번한 관세인상은 물론 반덤핑, 세이프가이드, 통관지연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수시로 발동해오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민국 수입규제는 브라질 11건, 콜롬비아 5건, 아르헨티나 3건 등 총 21건에 달한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 수입규제의 13%에 달하는 건수다.

표 5-2. 중남미 국별 대한민국 수입규제 현황(2014년 말 현재)

국가	반덤핑	반덤핑/상계 조치	세이프가드	
아르헨티나	3(1)	0(0)	0(0)	3(1)
브라질	11(3)	0(0)	0(0)	11(3)
칠레	0(0)	0(0)	0(0)	0(0)
콜롬비아	1(0)	0(0)	4(4)	5(4)
코스타리카	0(0)	0(0)	1(1)	1(1)
도미니카공화국	0(0)	0(0)	0(0)	0(0)
멕시코	1(0)	0(0)	0(0)	1(0)
중남미 합계	16(4)	0(0)	5(5)	21(9)
전 세계	107(18)	8(4)	49(18)	164(40)
비중(%)	14.9	-	10.2	12.8

주: () 안의 수치는 조사중인 건 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db.screen?menuid=ntb040202(검색일: 2014. 12. 10).

따라서 잠재적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대한(對韓) 무역역조가 큰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대한 무역역조가 심한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순이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직접적으로 현지 국가의 수입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구매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수입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직접투자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식량자원이나 광물자원을 개발해 수입해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는 무역역조 심화에 따라 악화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유무상 원조자금 증대, 기술협력 확대, 무역역조 개선방안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칫 무역역조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방안들은 무역역조가 큰 중남미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표 5-3.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 무역흑자 대상국 (2013년)

(단위: 천 달러)

국가	금액
멕시코	7,426,635
브라질	4,115,119
콜롬비아	1,135,726
에콰도르	871,525
베네수엘라	391,792
우루과이	264,974
과테말라	234,939
니카라과	164,302
엘살바도르	135,624
파라과이	128,771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의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중남미산 제품의 대한(對韓) 수입으로 이어져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여력이 높은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의 대한(對韓)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멕시코와 브라질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 중남미 국가들과 후속 FTA 확대

한·칠레 및 한·페루 FTA 사례에서 입증되듯 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수출확대를 담보하는 확실한 보험이다. 따라서 침체에 빠진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가들과의 후속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남미 FTA는 크게 세 가지 전략(three-track approach)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FTA의 개선(upgrade)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칠레와 페루의 FTA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개방했으나 한국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규모 국가들과의 FTA 전략이다. 현재 한국과 FTA 공동연구를 마쳤거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국가들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미국가들과 에콰도르이다. 한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5개국과 2010년 10월 공동연구를 개시해 2011년 4월 공동연구 보고서를 완료한 바 있다. 중미국가와의 FTA 협상은 FTA 효과나 협상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한

국)+5(중미 5개국) 협상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에콰도르와의 FTA는 폐쇄적인 중남미 좌파 블록을 공략하는 창구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거대경제권인 멕시코 및 브라질과의 FTA 전략이다.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및 브라질과의 FTA 체결에 관심이 매우 높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¹⁴⁾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약 81%가 멕시코와 FTA 체결에 커다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와의 FTA를 적극 희망한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의 FTA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 정보조달시장 참여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한·MERCOSUR 간 FTA 체결에도 관심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81%가 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¹⁵⁾ 한·MERCOSUR FTA 협상 시 우리 기업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멕시코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였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나 기업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에서 한국과의 FTA에 매우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멕시코 및 브라질과 어떠한 FTA 전략을 추진할

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는 본 연구진이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연구를 위해 2014년 8~10월에 걸쳐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권기수 외(2014), pp. 248~253 참고.

15)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는 본 연구진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중 브라질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이다. 당시 255개 대브라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43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했다. MERCOSUR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김진오 외(2011), pp. 219~227 참고.

것인가?

먼저 대멕시코 FTA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공법으로 멕시코 FTA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2008년 양자간 FTA 협상이 중단된 이후 멕시코의 FTA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거의 달라진 게 없어 이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많다. 둘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통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TPP 가입의사를 밝혔고, 멕시코와 TPP 예비 협상을 마친 상태여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은 멕시코와 자동적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다.¹⁶⁾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다음으로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 전략은 한·ME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공동연구 업그레이드를 통한 FTA 협상 분위기 조성이다.

한·MERCOSUR TA 협의는 2004년 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서 ‘양자간 무역자유화의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개시 발표’로 시작되었다. 공동연구회의(2005년. 5월~2006년 10월) 결과물인 최종 보고서는 제6차 한·MERCOSUR 정책협의회(2007년 10월 31일)에서 채택되고, 각국의 보고서 검토 및 국내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추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 성과가 전무한 상황이다.¹⁷⁾

양측은 TA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2009년 7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MOU)¹⁸⁾를 체결해 TA 이행문제 등을 논

16) 권기수 외(2014), pp. 250~253.

17) MERCOSUR 주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국내 제조업계의 반발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교역보다 FDI 유치 중시 등 MERCOSUR 통합체의 특성이 역외지역과의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측은 아직까지 한·MERCOSUR TA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MERCOSUR와의 FTA 협상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한·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업그레이드를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¹⁹⁾

한·MERCOSUR TA 공동연구는 양자간 무역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괄적 경제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 주제에 산업협력, 기술협력, 인프라협력 등 다양한 경제협력 이슈를 포함시켜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인 MERCOSUR 측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MERCOSUR 시장 진출 시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연구에 무역원활화 방안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18) MOU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후속조치로 추가 연구대상 발굴, 협상 개시 가능성 협의 및 정책권고 마련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등이다.

19) 양자간의 추가적인 공동연구의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6년 TA 공동연구 이후 MERCOSUR의 통상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당초 4개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서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역외 FTA 체결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분분하다. 4개 회원국 중에서 우루과이는 역외 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셋째, 역외국과의 FTA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MERCOSUR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역외국가와의 FTA 협상 추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간 역외국가와의 FTA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상파울루경제인연합회(FIESP)를 비롯한 브라질 재계도 FTA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화하고 있다. 브라질·미국의 관계개선 시도와 태평양동맹(PA)과의 협력확대 주장 등이 대표적인 통상정책 변화요구의 여론이다. 김진오 외(2011)가 MERCOSUR 4개국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는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서는 역외국과 FTA에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한·MERCOSUR 정책협의회 활성화의 모멘텀 마련의 필요성 때문이다. 양자간 공동연구 재개를 통해 최근 5년간 중단되었던 한·MERCOSUR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비관세장벽 개선

우리 기업들이 대중남미 수출 시 겪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 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이다. 이 같은 사실은 중남미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주 목격된다. 대표적으로 권기수 외(2009)가 중남미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 시 관세삭감(전체 응답기업의 40.3%)만큼이나 비관세장벽 철폐(31.3%)에 관심이 높다.²⁰⁾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수출 시 경험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 허가 및 승인(19.4%),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과금(17.3%), 세관의 자의적인 관세평가로 인한 과도한 관세부과(14.3%), 통관지연(7.1%), 세관원의 뇌물요구 및 고의적인 행정지연(5.1%), 안전규격 라벨링 등 제품표시(4.1%), 인증취득 시 불필요한 기술요건 요구(4.1%), 선적전 사전검사(4.1%) 등을 들 수 있다.²¹⁾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해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한국형 ‘Single Window’ 제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보급 확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²²⁾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0) 권기수, 김진오, 고희채(2009), pp. 209~210.

21) 김진오 외(2011), p. 224.

22)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써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관세청에서 범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AEO 업체는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신뢰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입 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무역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AEO 업체들은 협정체결국가에서도 검사비용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먼저 한국형 ‘Single Window’ 제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시스템을 전수받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비즈니스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에콰도르에서 UNI-PASS에 기반한 전자통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2013년 2월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싱글윈도/윈스톱 세관시스템(Ecu-PASS)을 도입하여 세관통관시간을 단축(7일→5일)하고 물류비(연간 320억 원)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원활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3년 12월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혁신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상의 에콰도르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수는 한국의 앞선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성과는 물론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통관시스템의 개선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글상자 5-1. 한국의 대중남미 UNI-PASS 협력 현황

▶ 도미니카공화국

- 2006년 10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및 세관직원 초청연수
- 2007년 7월 한국전자통관진흥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감리컨설팅계약 체결
- 2008년 4월 사업자(오토버시스템즈) 선정 및 2009년 12월 시스템 개통
 -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본청과 33개 세관을 연결하는 수출입 통관 및 화물시스템, 수출입 포털시스템 구현과 이를 지원하는 IT 인프라를 구축
 - ※ 관세행정체계 보강으로 세관업무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등 17개 분야 1,000여 개 서비스 기능 개발

국제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리드타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2014), “AEO”,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69&layoutMenuNo=201(검색일: 2014. 12. 10).

글상자 5-1. 계속

※ 전자결재, 지능형 화물시스템, 정부부처 간 인터페이스,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물리적 논리적 보안 강화를 위한 솔루션 도입, 전체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재해복구센터를 포함한 전산센터 구축 등을 수행

▶ 에콰도르

- 2010년 9월 UNI-PASS 도입계약 체결 이후 관세행정 전문가 파견, 세관직원 초청연수 등 UNI-PASS의 성공적인 구축에 노력
- 2013년 2월 싱글윈도/원스톱 세관시스템(Ecu-PASS) 개통
- 에콰도르는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관통관시간을 단축(7일→5일)하면서 물류비(연간 320억 원)를 줄이고 무역원활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3년 12월 WCO로부터 혁신대상을 수여

▶ 코스타리카

- 2013년 11월 7일 방한한 Luis Liberman Ginsburg 부통령에게 UNI-PASS 우수성을 소개하고, 향후 UNI-PASS 수출 등 양국간 관세행정 협력방안을 협의
- 2014년 5월 23일 전자정부청 대표단과 UNI-PASS 수출 및 협력방안을 논의

▶ 콜롬비아

- 제1차 양국간 관세청장회의(2011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관세청장회의, 고위 공무원 초청, 조세청 대상 세관현대화 지원사업(2013년) 등으로 UNI-PASS 수출 분위기를 조성
- 2013년 12월 2일에는 UNI-PASS 수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2014년 11월 5일 관세청·조세청 간 UNI-PASS 수출일정 및 협력방안 논의

▶ 볼리비아

- 2011년 11월 제1차 한볼리비아 관세청장회의에서 '볼리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개발 및 운영경험 공유를 위한 전문가 파견, 볼리비아 세관직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등을 포함
- 2013년 12월 3일 UNI-PASS 수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자료: 저자 작성.

둘째, 한국은 AEO를 뒤늦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WCO 기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대상범위의 포괄성과 이행의 신속성 등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AEO 제도가 기업들의 수출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비즈니스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한국은 AEO 국제표준을 활용한 한국형 AEO 제도의 확산과 함께 주요 무역상대

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관심이 많다. 2014년 6월 말 현재 한국은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2010년 6월), 일본(2011년 5월), 뉴질랜드(2011년 6월), 중국(2013년 6월), 홍콩(2014년 2월), 멕시코(2014년 3월), 터키(2014년 6월)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고, 인도, 이스라엘, EU, 대만,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태국 등과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과의 AEO MRA의 시범운영이 높은 효과성을 보임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²³⁾ 중남미 지역에서도 12개국이 AEO 제도를 시행 혹은 도입 중이고 250개 이상 업체가 AEO 공인을 받았다.

한국·중남미 간 무역규모와 증가속도를 볼 때 AEO MRA 체결이 확산되면 무역원활화 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남미 국가와의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AEO 제도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AEO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의 AEO 제도 협력 시 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23) 2013년 6월 27일 체결된 한국·중국 WEO MRA는 2014년 4월 1일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3개월간(2013년 8~10월) 시범운영되었고, 최초로 AEO MRA 체결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했다. 양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AEO 업체에 MRA 전면 이행시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부여해 MRA 체결 전후 3개월간의 항공 및 해상 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세관신고시점부터 물품반출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한국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통관소요시간이 10.17시간에서 3.54시간으로 62% 단축되고, 중국 AEO 업체 수출물품의 한국세관 통관소요시간도 5.10시간에서 2.16시간으로 56% 단축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국·중국 AEO MRA를 성공사례로 들며 역대 확대체결을 제안해 주목받기도 했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2012. 『중남미 인프라시장 동향과 유망 수출품목』.
- 권기수. 2001.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기수·김진오·고희채. 2009.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임태균. 2013.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2014.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남두·원용걸·전재욱·정훈. 1997. 『동아시아 무역, 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진오·권기수·고희채·박미숙·김형주. 2011.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지은·장지영. 2014. 『FTA 격전지 페루, 한국의 판세는?』. 국제무역연구원.
- 최인범. 1993.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2013.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방안 연구- 수출매력도지수 개발 및 활용』.

[영문자료]

- CEPAL. 2011.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_____. 2012. *Panorama de la inserción internacion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1-2012*.
- _____. 2013.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ECLAC.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2014*.

Santiago.

Fagan, G., J. Henry and R. Mestre. 2001. "An Area-Wide Model(AWM) for the Euro Area," p. 11. European Central Bank.

Bussiere Matthieu, Alexander Chudik and Giulia Sestieri. 2009. "Modelling Global Trade Flows: Results from a GVAR Model," p. 7, p. 9, p. 12. European Central Bank.

Obstfeld, M. and K. Rogoff. 2005. "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d Exchange Rate Adjustments."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Vol, 1. pp. 51-52.

[온라인 자료]

관세청. 2014. "AEO",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_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69&layoutMenuNo=201(검색일: 2014. 12. 10).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검색일: 2014. 11. 15).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db.screen?menuid=ntb040202(검색일: 2014. 12. 10).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Database(검색일: 2014. 11. 1).

Global Insight. <https://globalsso.ihs.com>(accessed November 14, 2014).

MDIC. mdic.gov.br/sitio/interna/interna.php?area=5&menu=1161(accessed December 2, 2014).

UN Comtrade. <http://uncomtrade.org>(accessed November 25, 2014).

■ Executive Summary ■

The Factors of Underperformance of Korea's Exports to Latin America and Policy Implications

Kisu Kwon and Misook Park

Up until recently, Korea has maintained a trade surplus vis-a-vis its trade with Latin America. The area accounted for a mere 7% of Korea's total exports but the surplus with Latin America stood at USD 18 billion, or about 41% of Korea's total trade surplus. However, exports to Latin America has been declining since 2011 by 4.9% annually, which is 5 times higher than Korea's average rate of export drop during the same period. Meanwhile, export to the region from other major export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increased and Latin America's import from the world also grew by 4%.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causing drops in Korea's exports and suggests some measures to regai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Latin America.

Chapter 2 depicts Latin America's import structure and Korea's export to the region. For the last 10 years, the annual import growth in Latin America was 10.7%, which far outstripped the world average of 7.9%, with developing countries emerging as major trading partners. On the other hand, Korea's export to Latin America has slowed since 2011. Especially, exports to Venezuela, Brazil and Colombia have shown a clear decreasing trend. And sales of major exporting goods such as large ships, vehicles,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steel and display devices declined rapidly. Korea's export to Latin America also showed over-

concentration in certain products and countries. Mexico and Brazil accounted for about 54% of total exports and the top 10 exporting goods capture about 72% of exports, which makes Korea's exports vulnerable to the business cycle of trading partners. The proportion of capital and intermediate goods is higher than consumer goods. There are several obstacles that Korean firms face in export markets. According to the survey with Korean exporters, they are struggling with fierce competition, particularly with Chinese firms. They pointed out other export barriers such as complicated customs procedures, additional taxes and arbitrary tariff rates.

Chapter 3 examine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The share of Korean products in Latin America's import has been declining since 2010 and the drop is noticeable regarding Chile. In general, Korean products have been losing their relative comparative advantage, with the largest drop coming in vehicle exports. The major competing countries in vehicle exports include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competition with China has intensified since

2011. For the last 10 years, Korea's export growth in Latin America was attributed to improved purchasing power in the region, and not to full exploitation of the growing import demand in certain products nor improved competitiveness in exporting goods.

Chapter 4 analyzes the causes of Korea's sluggish exports to Latin America. According to the 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 the recent drop in exports to the region resulted from diminishing import demand of the region.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did not have a meaningful impact on decreasing export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urvey results. Korean exporters indicated that non-price factors, such as quality and design, are more important in maintaining their competitiveness in this

market. They pointed out that competition with other countries hindered their export growth and the VAR result also showed that the fall in Korea's export can be attributed to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Chapter 5 suggests measures to restore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Latin America. First, Korea needs to diversify its export markets and exporting goods. There is potential to expand exports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Bolivia, the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Costa Rica, Paraguay and Venezuela. As the middle class grows and many governments expand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nfrastructure, Korea can find export opportunities in education, health care, transportation equipment, machinery, industrial equipment and construction equipment. Cooperation in distribution with Latin American multinationals can also facilitate export activity. Second, measures to alleviate trade imbalance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should be adopted to avoid future trade conflicts. Third, free trade agreements with more countries and upgrading the current agreements can contribute to additional export growth. Fourth, Korea can facilitate trade with the region by lowering non-tariff barriers. The successful measures that are implemented in several Latin America nations can be extend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Korean e-clearance system and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14-01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 조충제 · 송유철
 - 14-02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방송·영화·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최윤정 · 이정미
 - 14-03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이창수 · 송백훈
 - 14-04 동남아시아의 금융시장 구조와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분석: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이민환 · 김정렬
 - 14-05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 요인분석과 과제 / 권기수 · 박미숙
 - 14-06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이상현 · 박운주 · 김종섭 · 이미정 · 임태균 · 강정원 · 김유경 · 최명호
 - 14-07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경쟁력과 경제산업 구조변화 / 김면희 · 안상욱 · 김신규 · 김일곤 · 송병준
 - 14-08 마그레브지역의 ICT 산업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튀니지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장종문 · 손성현
 - 14-09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 한홍렬 · 박정호 · 윤성욱 · 조혜경
 - 14-10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 연구: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박상남 · 김선타 · 이지은 · 박상준
 - 14-11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 김석환 · 나희승 · 박영민
 - 14-12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터키·동유럽
 - 14-13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 14-14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 13-0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 강대창 · 김유미
 - 13-02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 강대창 · 손성현 · 서영경

- 13-03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
오윤아 · 신민금
- 13-04 중·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 정재완 · 방호경
- 13-05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
이 용 · 송영철 · 이정미
- 13-06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 조충제 · 최윤정
- 13-07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 ICT 산업 중심으로 /
성한경 · 이상준 · 이순철 · 홍성걸
- 13-08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 제성훈 · 민지영
- 13-09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 과 정책적 시사점 / 제성훈 · 강부균
- 13-10 한·벨라루스 ICT 산업 협력방안 / 민지영
- 13-11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 이정철 ·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13-12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 주진홍
- 13-13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 분석 및 사례연구 / 이창수 · 송백훈
- 13-14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 임태균 · 이시은
- 13-15 대중남미 중소기업 진출방안 연구: OLI 패러다임 분석을 중심으로 /
김승일 · 오화석 · 기현서
- 13-16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전해린
- 13-17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
최필수 · 임민경 · 박재운
- 13-18 한·중동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중동 금융시장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 양오석
- 13-19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13-20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김은지
- 13-21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
민지영 · 강부균 · 오명훈

- 13-22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통신 /
송영철 · 이정미 · 최원석
- 13-23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육상교통인프라, 바이오에너지 /
이재호 · 신민금 · 정윤서
- 13-24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 건설·플랜트, 자동차 /
김진오 · 박미숙 · 유성준
- 13-25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 건설, 제약 /
전혜린 · 장중문 · 류영규
- 13-26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이용호
- 13-27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 이철원 · 이현진 · 강세나
- 13-2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 인도 · 남아시아
- 13-2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
- 13-3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앙아시아 · 몽골
- 13-3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 2012년
- 12-01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 이 용 · 송영철
-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오윤아 · 정재완 · 박나리
-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 장준영

-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 강인수·송유철·이호생·한홍렬
-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 이요한
- 12-06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이재영·제성훈·김홍진·간투무르 몽크나산
-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 주진홍
-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 조영관·성원용·이상준·주진홍
- 12-10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백준기·김재관·이남주·박상남
-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 장용규·설병수·황규득·강경화·베텔
-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이진상·변 응
- 12-13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곽성일·전혜린·백석훈
-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박미숙·이시은
- 12-15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 김기현·박윤주·김영철·이상현
-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 이권형·손성현
- 12-17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 이권형·박재은·박현도
-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이재호·박나리
-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 강부균·민지영

-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김진오 · 이시은
-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 윤서영 · 박재은
-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 전해린
-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동남아시아
- 12-2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 12-2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러시아, 몽골
-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 11-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 · 손승호 · 임정성
- 11-2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 이순철 · 이영일
- 11-3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 · 은기수 · 박 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 11-4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 김현재 · 조상민 · 박찬국
- 11-5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용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 11-6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윤
- 11-7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홍국 · 윤진표 · 이한우 · 최경희 · 김동엽
- 11-8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 · 김홍구 · 조영희 · 이요한 · 신민금
- 11-9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 · 박나리 · 김형준 · 홍석준 · 원순구 · 손승호

■ 2011년

- 11-10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 · 강인수 · 송유철 · 한홍렬
- 11-11 미얀마 사회문화 · 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 · 장준영 · 최재현 · 우꼬래 · 강대창 · 김유미 · 박나리
- 11-12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정세진 · 박정호 · 박병인 · 나희승
- 11-13 한 · 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 · 김영진 · 김일겸 · 김안국 · 홍미희 · 성동기 · 이시영
- 11-1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 · 주진홍 · 강명구 · 김영식 · 오영일 · 이상준
- 11-15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이재영 · 이평래 · 윤익중 · 이시영 · S. Avirmed
- 11-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11-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11-1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11-1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 11-2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 11-2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권기수(權奇洙)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리아연방대학교(UnB) 초청연구원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장
(現, E-mail: kskwon@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13)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공저, 2013) 외

박미숙(朴美淑)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남미 지역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isookp@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13)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공저, 2013) 외

전략지역심층연구 14-05
연구자료 14-1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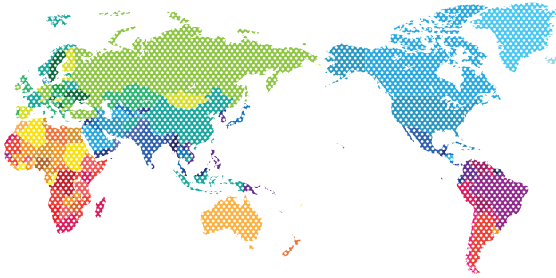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42 FAX: 044-414-1144

인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전화 031-421-8418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400-8 94320 정가 7,000원
978-89-322-2064-2 (세트)



The Factors of Underperformance of Korea's Exports to Latin America and Policy Implications

Kisu Kwon and Misook Park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증가세는 물론 경쟁국의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남미 수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2400-8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